■민족문화연구 제100호(2023.08.3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pp.267-301.
http://doi.org/10.17948/kcs.2023..100.267

檀君天王堂에서 三聖祠로, 그리고 평양 檀君廟 건립에 따른 폐치 논란

김성환(金成煥)*

목 차

1. 머리말
2. 檀君天王堂에서 三聖祠로 변화와 移建
3. 고려시대 삼성사 제사의 사례
4. 평양 檀君廟 건립에 따른 삼성사의 廢置 논란
5. 맺음말

국문초록

三聖祠는 단군천왕당이 두 차례 이건되면서 환인·환웅과 合祀된 결과였다. 단인·단웅의 명칭도 이와 관련하여 해석할 수 있다. 그 배경에는 패엽사와의 관계가 작용하고 있었다. 이 글에서는 『삼성당사적』의 逸文을 토대로 대증산에서의 단군천왕당은 패엽사 창건 이전부터 존재했고, 패엽사 창건 직후 그 아래 소봉으로 옮겨졌다가 신라 말 고려 초 소증산으로 다시 이건되면서 환인과 환웅을 合祀하여 삼성사가 된 것으로 파악했다.

삼성사는 주실인 삼성당, 단군천왕인 구월산대왕과 土地精神·四直使者를 모신 배향청, 제사를 준비하는 전사청, 기우를 위한 기우용단, 초례가 설행되었던 四王寺 등으로 구성되었다. 삼성은 神像(조선 초 이전) 및 위패(조선 초 이후)로 모셔졌는데, 북벽에는 환인(단인)천왕을 남향으로, 동벽에는 환웅(단웅)천왕을 서향으로, 서벽에는 단군천왕을 동향으로 모셔 환인을 주향으로 환웅과 단군을 종향했다. 1429년(세종 11) 평양에 檀君廟가 건립되면서 삼성사는 국가제사에서 배제되었다가 1472년(성종 3)에야 비로소 立廟되었다. 이 과정에서의 위패 명칭에 대한 변동성, 단군과 환인·환웅에 대한 치제 여부 등은 조선 전기 삼성사 운영의 안정성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 전 경기도박물관장.

고려시대 삼성사 제사는 1386년(우왕 12) 은율현감으로 제사를 참관한 羅繼從에게서 확인된다. 그는 1386년 9월 19일 친구인 상서 嚴櫟의 삼성사 歲祭 설행에 참여했다. 이때 모셔져 있던 삼성의 신상은 단인·단웅·단군이었는데, 고려시대에는 2~3품의 관리가 행향사로 차정되어 설행하는 유사섭사로 매년 봄가을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 건국 직후부터 논의된 국가제사에서의 단군제사는 東方始受命之主로서 '朝鮮檀君'을 모시는 것이었다. 그런데 고구려 동명왕과 합사된 평양의 檀君祠는 삼성사와 갈등 관계에 놓이게 되었고, 문화현 출신의 관료였던 柳觀·柳思訥 등을 통해 이에 대한 반론이 전개되었지만, 단군의 도읍으로서 평양은 부동의 위치였다. 이후 李先齊는 『삼국유사』「고조선」조의 『고기』의 기록을 직접 인용하며 문화현에서 단군의 역사성을 강조하는 한편, 당시 황해도 전역에 만연했던 瘟疫 퇴치의 유일한 방법으로 단군을 다시 구월산으로 모셔 와 삼성을 온전하게 제사하는 것을 제시했다. 그 결과 삼성사는 1472년(성종 3) 평양의 단군사당과 함께 국가제사에 편제되어 中祀를 적용한 「향조선단군의」를 준용하여 제사를 설행하게 되었다.

주제어: 단군천왕당, 三聖祠, 환인(단인)천왕, 환웅(단웅)천왕, 嚴櫟, 檀君祠, 『三聖堂事跡』

1. 머리말

구월산 三聖祠는[1] 단군을 모신 사당으로 고려 전기부터 제사의 대상이었다.[2] 평양의 단군사당인 平壤廟가 단군만을 모신 반면에[3] 삼성사에서는 檀因(환인)·檀雄(환웅)을 함께 모시고 있었다. 두 곳이 모두 단군의 도읍지였다는 전승에 기반을 두었지만, 삼성사는 제사 대상에서 단군에 그치지 않고 단인과 단웅을 포함하여 평양에 비해 내용이 풍부하며, 단군이 산신이 된 아사달산(구월산)에 위치하여 그 성격이 산신임을 보여준다.

---

1) 이 글에서는 삼성사의 명칭으로 '三聖祠'와 '三聖堂'을 함께 사용하고자 한다. '삼성당'의 경우에는 삼성사의 主室을 지칭하는 경우와 인용 자료에서 삼성당이라고 쓴 경우에 국한하여 쓰고, 가급적 '삼성사'를 사용하려고 한다.

2) 『고려사』 예지, 특히 雜祀에 삼성사가 없어 고려의 국가 제사 포함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하지만 후술하는 것처럼 1116년(예종 11) 4월 국왕의 구월산 기우 사실이 『고려사』 세가와 오행지에 전하고, 1006년(목종 9)의 「祈雨龍壇儀注」가 1471년(성종 2)까지 문화현에 전해지고 있음을 참고할 때, 삼성사는 고려 전기부터 국가 제사에 편제되어 있었을 것이다.

3) 김성환, 「조선초기 단군인식」, 『명지사론』 4, 명지사학회, 1990; 「고려시대 평양의 단군전승」, 『문화사학』 10, 한국문화사학회, 1998.

제사 내용과 성격에 대해서는 『성종실록』에 실린 1472년(성종 3) 황해도 관찰사 李芮(1419~1480)의 상서에 소개된 『三聖堂事跡』에서 대략을 파악할 수 있다.[4] 평양의 단군묘 건립으로 조선의 국가 제사에 편제되지 못한 삼성사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세종 때부터 성종 때까지 지속된 문화현 사람들의 노력과 이에 대응하는 국왕을 대표하는 조선 정부 입장을 사대부와 왕실의 신이인식 차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도 있다.[5] 또 삼성사의 고고학적 조사를 정리한 연구와[6] 구월산 일대의 고고학적 상황과 단군전승을 검토하여 그 성격을 추론한 연구도 있다.[7] 이 같은 연구로 삼성사의 성격과 제사 내용의 전반이 밝혀졌다.

그렇지만 삼성사 제사와 관련해서 아직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 일단 현장 조사가 가능하지 못해 단편적인 문헌자료에만 의지해야 하는 현실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 이 글에서는 먼저 고려시대의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지만, 삼성사의 원래 모습이 단군천왕당에서 변화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리고 삼성사의 구조는 어떠했고, 부속시설들이 어떻게 기능하고 있었는지, 고려시대의 제사 실상이 어떠했는지를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 평양에 단군묘가 건립되면서 삼성사 위상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고려와 조선의 제사는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등에 대한 문제를 조선 전기 삼성사 폐치를 둘러싼 논란을 중심으로 검토하려고 한다. 이를 통해 국가 제사에서 삼성사에 대한 이해는 물론, 구월산의 단군전승에 대한 이해 역시 심화하기를 기대한다.

2. 檀君天王堂에서 三聖祠로 변화와 移建

구월산은 문화현의 진산이다. 그곳의 삼성사는 三聖堂・三聖廟・三聖殿으로도 불렸다. '堂'과 '祠', '殿'과 '廟'가 모두 사당을 가리키지만, 전자와 후자는

4) 김성환, 「高麗時代 三聖祠의 檀君傳承」, 『백산학보』 46, 백산학회, 1996(김성환, 『高麗時代 檀君傳承과 認識』, 경인문화사, 2002 재수록); 허흥식, 「九月山 三聖堂事跡의 祭儀와 그 變化」, 『단군학연구』 1, 단군학회, 1999.
5) 박성지, 「구월산 삼성사 복원 과정을 통해 본 조선 초기 사대부의 신이인식—황해도 기이담론 연구의 일환으로—」, 『洌上古典硏究』 57, 열상고전연구회, 2017.
6) 박진욱・안명찬, 「구월산의 단군사터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94-3, 사회과학출판사, 1994.
7) 김남중, 「안악군 당장경 유적과 단군 전승」, 『동북아역사논총』 65, 동북아역사재단, 2019.

일정한 차이가 있었다. 조선 후기의 사례이기는 하지만, 1789년(정조 13) 정조가 주관하고 대신과 내각 신료가 참여한 「三聖祠祭品祭式收議」에서 홍문관제학 徐有隣(1738~1802)의 언급에서 그 이해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

> A-1. 홍문관제학 서유린이 "역대 시조는 단군이 가장 먼저 나왔는데 祀典과 祝式에 있어 애당초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삼성사를 殿이나 廟라고 하지 않고 유독 祠라고 칭하며, 제향의식과 守直 절차가 규식과 같지 않은 것이 많은 것은 또한 그 까닭이 있습니다. 삼가 우리나라의 史書를 살펴보니, 단군이 태백산에 내려와 王儉城에 도읍했다가 이후 阿斯達山으로 들어가 神이 되었습니다. 태백산은 바로 영변부의 묘향산이고, 왕검성은 바로 평양부이며, 아사달산은 바로 문화현 구월산입니다. 평양부에 특별히 崇靈殿을 설치하여 단군을 제향하는 것은 평양이 바로 도읍을 정한 땅이고, 영변과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로 보건대, 문화현 三聖祠는 바로 桂林에 있는 虞帝의 廟를 모방한 것이며, 이어 또 단군의 先世 2代를 아울러 제향하는 것이니, 사체로 헤아려볼 때 숭령전이 오로지 역대 시조를 제향하는 것과 비교하여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 제향의식과 수직 등의 절차가 숭령전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만, 이번에 修改하는 김에 제향의식이 규식과 같지 않은 것은 참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고 했다.[8]

자료 A-1에서 서유린은 중국 요임금의 사당인 堯廟와 비교할 수 있는 평양의 단군묘(후에 숭령전)가 단군이 처음 도읍한 평양에 건립한 국가의 공식적인 사당이라면, 구월산 삼성사는 순임금의 사당인 계림의 虞帝廟를 모방한 것으로 단군묘와 비교하여 격에서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삼성사를 殿이나 廟라고 하지 않고, 제향의식과 守直 절차 등도 단군묘와 차이가 많은 것 역시 그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삼성사가 역대시조묘로서 단군묘와 같이 단군을 모신 사당이 아니고, 단군의 先世 2대를 아울러 제향하는 사당이라는 점도 '묘'가 아닌 '사'로 명칭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그런 가운데 祭式은 숭령전의 「享朝鮮檀君儀」와[9] 같이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

8) 『일성록』 정조 13년 6월 경신(6일) "弘文提學徐有隣 以爲歷代始祖檀君首出 祀典祝式初無異同 今此三聖祠不曰殿廟 而獨稱以祠 享儀守直之節 多不如式者 抑或有所以然者 謹按東史曰 檀君降于太白山 都王儉城 後入阿斯達山 爲神 太白山 卽寧邊府妙香山 王儉城 卽平壤府 阿斯達山 卽文化縣九月山也 平壤府特置崇靈殿 以享檀君 蓋平壤卽所都之地 距寧邊不遠故也 以此觀之 文化之祠 卽倣桂林虞帝之廟 仍又竝享其先世兩代 則揆以事面比諸 崇靈殿之專享歷代始祖煞有間焉 享儀守直之節 不及崇靈殿恐不是異事 而今因修改之役 享儀之不如式者允宜釐改".

구월산에서 삼성사의 제반 내용에 대해 살펴보려면, 성종 초 삼성사를 국가 제사에 立廟하기를 요청한 황해도관찰사 李芮의 보고부터 검토해야 한다. 수십여 년 전부터 황해도 일대에 창궐하여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전염병에 대해 고민하던 성종이 1471년(성종 2) 11월 그 원인에 대한 조사를 명령하고, 이듬해 2월 이에 대한 그의 보고가 있었다. 특히 보고에는 삼성사의 유래부터 致祭의 전반에 대해 싣고 있는 『三聖堂事跡』을 전재하고 있다.

A-2. 황해도관찰사 李芮에게 下書하기를 "사람들의 말에는 '檀君天王堂은 본래 구월산 上峯에 있었는데 뒤에 貝葉寺가 그 아래에 있다고 하여 堂이 佛刹 위에 있는 것을 마땅하게 여기지 않아 사찰 앞 봉우리에 옮겼다가 뒤에 또 산기슭에 옮겨 天王 三位를 설치했다. 또 使者의 配享廳과 典祀廳을 설치하여 香을 내려 치제한 지가 이미 오래되거늘 그 뒤에 폐지하여 제사하지 않았다. 또 祈雨壇을 그 곁에 쌓아 닭과 돼지를 잡으니 神이 미워하여 악병이 마침내 일어났다'고 한다. 천왕당과 사자의 배향청·전사청이라고 하는 옛터가 아직도 있고, 神位를 건설한 원인을 전하는 자가 아직도 있는가? 향을 내려 치제한 前禮를 상고할 수 있으며, 기우단을 쌓은 것은 어느 때였는가? 지금도 이 壇에서 기우제를 행하며, 닭과 돼지를 잡는다는 말은 옳은가? 악병은 전에 없었던 것인데 과연 이 때문에 처음 일어났는가? 필시 諺傳으로 전하는 말이 있을 것이니 그 조목조목을 따라 訪問하여 자세히 병의 근원을 궁구하여 啓聞하라"고 했다.[10]

A-3. 황해도관찰사 李芮가 馳啓하기를 "신이 전번의 下諭 때문에 문화현의 옛 노인 前司直 崔池, 前殿直 崔得江을 방문하고 『三聖堂事跡』을 얻어 그것을 조목으로 기록하여 아룁니다.

1. 俗諺에 전하기는 단군이 처음 神이 되어 구월산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祠宇는 패엽사 서쪽 大甑山의 佛刹에 임하여 있다가 그 뒤에 절 아래 小峯로 옮겼고, 또 다시 小甑山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곧 지금의 三聖堂입니다. 대증산과 패엽사 아래의 작은 봉우리에 지금은 堂基가 없어 그때 치제한 것과 또 三聖도 아울러

9) 『세종실록』 권131, 오례, 길례, 「享朝鮮檀君儀」.

10) 『성종실록』 권13, 성종 2년 11월 병인(28일) "下書黃海道觀察使李芮曰 人言 檀君天王堂 本在九月山上峯 後以貝葉寺在其下 堂不宜在佛刹上 移於寺之前峯 後又移於山麓 設天王三位 又設使者配享廳及典祀廳 降香致祭行之已久 其後廢不祀 又築祈雨壇於其側 宰殺雞豚 爲神所厭 惡病遂起 所謂天王堂及使者配享廳·典祀廳古基猶存歟 神位建設之因 有傳之者歟 降香致祭前禮可考歟 祈雨壇之築 在何時乎 至今祈雨行於此壇歟 宰殺雞豚之言然歟 惡病果前所無 而因此始起歟 必有諺傳之言 其逐條訪問 詳究病源 以啓".

제사 지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1. 단군과 아버지 桓雄, 할아버지 桓因을 일컬어 삼성이라 하고, 사우를 세워 제사를 지내다가 제사를 폐한 뒤로부터 堂宇가 기울어져 무너졌었는데, 경태 경오년(1450)에 이르러 현령 申孝源이 중창하고, 무인년(1458)에 현령 梅佐가 단청을 했습니다.

1. 삼성당에 환인천왕은 남향하고, 환웅천왕은 서향하고, 단군천왕은 동향하여 다 위패가 있습니다. 속설에 전하기를 옛날에는 모두 木像이 있었는데, 태종조에 河崙이 諸祠의 목상을 혁파할 것을 건의해 삼성의 목상도 또한 例에 따라 파했다고 하며, 儀物의 설치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1. 삼성당의 서쪽 夾室에는 九月山大王이 가운데 있고, 왼쪽에 土地精神, 오른쪽에 四直使者가 있는데, 그 位板은 모두 남향해 있습니다.

1. 예전에는 전사청이 없었는데, 매좌가 삼성당 아래에 草屋 수 칸을 지어 緇徒에게 거주하게 하고, 제사 때는 여기에서 齋宿하고 祭物도 또한 여기에서 장만했습니다.

1. 삼성당의 서북쪽 3리쯤에 두 절이 있고, 5리쯤에 한 절이 있고, 동북쪽 4리쯤에 한 절이 있습니다.

1. 패엽사 또한 삼성당 서쪽 6리쯤에 한 고개와 한 시내를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1. 삼성당의 祭器는 옛날에 금은을 사용했는데, 왜란 이후 沙器를 쓰다가 매좌가 비로소 鍮器로 만들었습니다.

1. 廟宇를 평양으로 이전한 뒤 이 堂의 제사를 폐지한 것이 벌써 60여 년이 되었다 하고, 혹은 태종조 경진년(1400)·신사년(1401)·임오년(1402) 사이라고도 하니 어떤 것이 옳은지 알 수 없습니다. 香을 내려 치제한 儀軌 또한 상고할 수 없습니다.

1. 구월산 上峯은 천왕당이 아니고 이름을 四王峯이라 하며, 또한 예전에 향을 내려 치제하던 곳이 있었는데, 태종 을미년(1415) 사이에 처음 혁파했다고 하나 그 堂基를 일찍이 본 사람이 없고, 이제 또한 얼음이 얼어 위험하여 사람이 올라갈 수도 없습니다.

1. 『關西勝覽』에 문화현 古跡을 기록하기를 '구월산 아래 聖堂里에 소증산이 있는데 환인·환웅·단군의 三聖祠가 있고, 구월산 정상에는 四王寺가 있는데, 예전에 星宿를 醮禮하던 곳'이라 했습니다.

1. 삼성당을 평양으로 옮긴 뒤 비록 국가에서 치제하지 않았으나, 祈雨·祈晴을 할 때는 縣官이 朝服을 갖추고 친히 제사지내며, 제사에는 白餠·白飯·幣帛·實果를 씁니다. 이 밖에 다른 제사는 행할 수가 없는데, 고을의 풍속에는 영험이 있다고 일컬어 사람들이 감히 와서 제사하지 못합니다.

1. 祈雨龍壇은 삼성당 아래 백여 보에 있으나, 설치한 날짜는 알지 못합니다. 縣에 소장된 송나라 경덕 3년 병오년(1006) 5월 儀注에는 '떡[餠]·밥[飯]·술[酒]과 흰 거위[白鵝]를 사용하여 제사를 행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지금은 흰 닭[白雞]을 대신 쓰고 돼지는 쓰지 않습니다.

1. 삼성당 아래 근처에는 인가가 조밀했는데, 제사를 파한 뒤로부터 惡病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인가가 텅 비었습니다. 그러나 닭·돼지를 도살하여 신령이 싫어했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습니다.[11]

우선 자료 A-2, A-3에서는 구월산에서 삼성사의 연혁 및 위치와 구조, 삼성의 위패 명칭, 主享의 문제 등이 확인된다. 먼저 A-2에서는 삼성사의 위치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그런데 여기에서 檀君天王堂이 두 차례 이건되면서 환인·환웅을 함께 모신 삼성사로 변화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단군천왕당의 원래 위치에 대해서는 구월산 정상이었다거나, 패엽사 서쪽의 대증산이었다는 두 가지 설이 있었지만, 패엽사 아래의 작은 봉우리로 옮겨질 때까지 단군천왕당에서 모셔지던 단군은 소증산으로 옮겨지면서 환인·환웅 천왕과 함께 모셔져 삼성사가 되었다. 즉 단군천왕당은 후에 그 아래에 패엽사가 창건되어 神堂과 사찰이 함께 유지되었고, 패엽사가 점차 확장되면서 사찰 위쪽에 위치한 단군천왕당에 마치 패엽사가 위축되어 있는듯한 형세를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따라서 신당의 이건이 추진되어 마침내 패엽사 앞의 봉우리로 옮기게 되었다. 하지만 이 역시 패엽사의 寺域이 확장되면서 다시 소증산 기슭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삼성을 함께 모셔졌다고 한다. 단군천왕을 포함한 삼성사와 패엽사를 사이에 둔 구월산 일대 주민들의 신앙 비중이 삼성사에서 점차

11) 『성종실록』 권15, 성종 3년 2월 계유(6일) "黃海道觀察使李芮馳啓曰 臣因前下諭 訪問文化縣古老人前司直崔池·前縣直崔得江 得三聖堂事跡 條錄以聞 一 諺傳檀君初爲神 入九月山 祠宇在貝葉寺西大甑山 臨佛刹 後自移于寺下小峯 又移于小甑山 卽今之三聖堂也 大甑山及貝葉寺下小峯 今無堂基 其時致祭與否及幷祭三聖 未可知 一 檀君及父檀雄·祖桓因 稱爲三聖 建祠宇祭之 自祀廢後 堂宇頹頹 逮景泰庚午 縣令申孝源重創 戊寅縣令梅佐施丹靑 一 三聖堂桓因天王南向 檀雄天王西向 檀君天王東向 幷板位 俗傳古皆木像 我太宗朝河崙建議 革諸祠木像 三聖木像亦例罷 儀物設置與否未可知 一 三聖堂西夾室 九月山大王居中 左土地精神 右四直使者 竝位板南向 一 古無典祀廳 梅佐乃於三聖堂下作草屋數間 令緇徒居之 祭祀時則齋宿于此 祭物亦於此辦設 一 三聖堂西北三里許有二寺 五里許有一寺 東北四里許有一寺 一 貝葉寺亦在三聖堂西六里許 隔一嶺一澗 一 三聖堂祭器 古用金銀 自倭亂後 用沙器 梅佐始造鍮器 一 廟宇移平壤後 罷此堂之祭 今已六十餘年 或云我太宗朝庚辰辛巳壬午年間也 未知是否 其降香致祭儀軌亦不可考 一 九月山上峯非天王堂 乃名爲四王峯 亦古降香致祭處 我太宗乙未年間始革之 其堂基曾無見者 今亦氷凍危險 人不得上 一 關西勝覽載文化縣古跡云 九月山下聖堂里 有小甑山 有桓因檀雄檀君 三聖祠 九月山頂有四王寺 古之星宿醮禮處 一 自三聖堂移平壤後 雖國家不致祭 若祈雨祈晴 縣官具朝服親祭 祭用白餠白飯幣帛實果 此外不得行他祭 邑俗稱爲靈驗 人不敢來祭 一 祈雨龍壇在三聖堂下百餘步 未知設置日月 縣所藏宋景德三年丙午五月儀注載 用餠飯酒及白鵝 行祭今代用白雞 不用豚 一 三聖堂下近處人家稠密 自罷祭後 惡病始發 人家一空 其雞豚宰殺 爲神所厭之語則未聞".

패엽사로 옮겨지는 과정과 관계있는 것으로 보인다. 『삼국유사』「고조선」조의 『고기』에서 "장당경으로 옮겼다가 뒤에 돌아와 아사달에 숨어 산신이 된 단군은[12] 단군천왕당에서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제왕운기』에서도 삼성에 대한 언급이 없이 아사달산에 들어가 산신이 된 단군을 모신 사당이 구월산에 있다고 했는데,[13] 단군천왕당의 원래 모습을 유추할 수 있다.

하지만 A-3 이예의 현지조사보고에서 확인되듯이 구월산 정상인 四王峯에는 단군천왕당이 없었다. 그의 보고는 조선 전기에 편찬된 황해도 지역의 지리지 성격으로 보이는 『關西勝覽』과 같은 시기에 삼성사의 司直과 殿直의 소임을 맡아 제사와 관련한 제반 사항을 정리한 崔池·崔得江 등에게 얻은 『삼성당사적』을 토대로 작성되었다. 이에 따르면, 구월산 정상에는 예전에 醮禮를 위해 강향치재하던 四王寺가 있었는데,[14] 이것이 단군천왕당으로 잘못 전해졌던 것이다. 고려시대 이래 지속된 이곳에서의 초례는 1415년(태종 15) 혁파되었다. 단군천왕당은 구월산 정상이 아니라 패엽사 서쪽에 있는 大甑山에 있었는데, 이 역시 사찰과 가까워 절 아래 작은 봉우리[小峰]로 옮겼다가 다시 小甑山으로 이전된 것으로 확인된다.

1472년 당시 삼성사 위치는 패엽사 서쪽 대증산의 단군천왕당→패엽사 아래 小峰의 단군천왕당→패엽사 동쪽 6리 소증산의 삼성사로 이전된 결과였다. 물론 이예의 보고에서는 대증산과 패엽사 아래 작은 봉우리의 사당터는 확인되지 않아 이때 치제의 내용과 삼성을 合祀했는지 알 수 없다고 하여 성종의 의견을 유보하는듯한 입장이다. 그렇지만 정확하게는 단군천왕당에서 삼성의 합사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그 또한 단군천왕당에서 삼성사로의 변화를 인지하고 있었다.

사당 건립 및 이건 시기에 대해서 대략 세 가지 견해가 있다. 첫 번째는 고구려 때 건립된 사왕봉 밑에 있던 사당이[15] 역시 고구려 때 대증산으로 옮겨졌다가

12) 『삼국유사』 권1, 기이1, 「고조선【왕검조선】」 "古記云 (…) 周虎王即位己卯 封箕子於朝鮮 壇君乃移於藏唐京 後還隱於阿斯達爲山神 壽一千九百八歲".

13) 『제왕운기』 하권, 동국군왕개국연대, 「전조선기」 "(…) 竝與帝高興戊辰 經虞歷夏居中宸 於殷虎丁八乙未 入阿斯達山爲神【今九月山也 一名弓忽 又名三危 祠堂猶在】 享國一千二十八 無奈變化傳桓因 (…)"

14) 『세종실록』 권152, 지리지, 황해도, 풍천군, 문화현 "四王寺 在九月山主峯【有舊星宿醮處】"

고려 말에 소증산으로 옮겨졌다는 것이다.[16] 두 번째는 고려 초기부터 구월산 제일봉인 사왕봉에 있던 사당이 고려 중엽 패엽사 서쪽 檀君臺 밑으로 옮겨졌고, 다시 고려 말에 소증산으로 옮겨졌다는 것이다.[17] 세 번째는 이예의 보고문을 수용하여 서쪽 대증산→패엽사 아래 소봉→소증산으로 이건되었다는 것이다.[18] 그런데 위의 두 견해는 자료 A-2, A-3의 내용에서 벗어난다. 구월산 정상인 사왕봉을 단군천왕당의 첫 번째 위치로 비정한 것은 그곳이 사왕사터였음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다. 또 두 견해에서는 사왕봉에서 대증산 또는 패엽사 서쪽 단군대 밑으로 이건되었다고 하는데, 자료 A-3에서는 단군천왕당의 원래 위치를 패엽사 서쪽 대증산으로 밝히고, 그곳에서 패엽사 아래 소봉으로 이전되었음을 확인하고 있다. 즉 구월산 정상 사왕봉→대증산(패엽사 서쪽 단군대 밑)→소증산으로 이건되었다는 견해는 패엽사 아래 소봉으로의 이전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즉 대증산의 단군천왕당에서는 단군만 獨尊되다가 패엽사 아래 작은 봉우리로 옮겨지면서 帝釋환인과 합사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다시 소증산으로 옮기면서 여기에 환인과 환웅이 함께 모셔지면서 삼성사의 모습을 갖춘 것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그들은 또 이건 시기에 대해서 고구려 때 창건된 삼성사가 역시 고구려 때 대증산으로 이건되었다가 고려 말에 소증산으로 옮겨졌다고 하거나, 고려 초부터 사왕봉에 있던 사당이 고려 중엽에 단군대 밑으로, 다시 고려 말에 소증산으로 이건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자료 A-3의 1006년 「기우용단의주」을 참고할 때, 삼성사가 소증산에 자리한 시기는 이미 11세기 초 이전으로 파악된다. 패엽사 서쪽 대증산과 패엽사[19] 아래 소봉의 단군천왕당은 자세한

15) 李植(1584~1647)은 삼성사가 구월산 최고봉인 四王峯 아래에 있다고 했다. 『택당집』 권1, 시, 「山城」【在九月山極頂四王峯下 下有三聖廟】.
16) 박진욱・안명찬, 앞의 글, 11면.
17) 손영종, 「조선민족은 단군을 원시조로 하는 단일민족」, 『단군과 고조선에 관한 연구론문집』, 사회과학출판사, 1994, 116면.
18) 김성환, 앞의 글, 1996. 이 논문에서는 단군천왕당과 삼성사의 차이를 간과한 채 대증산에 있던 사당에서부터 삼성을 모신 것으로 이해한 바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소증산으로 옮겨 환인과 환웅이 함께 모셔지면서 삼성사의 모습을 갖춘 것으로 앞서의 견해를 수정하고자 한다.
19) 成海應(1760~1839)은 패엽사에 檀君遺跡이 있다고 했는데, 그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 『연경재전집』 권51, 산수기(下), 記海西山水, 「九月山」 "九月山在文化之境 由停轂寺至山城可二十里 自山城十里可登四王峯 卽九月之絶頂也 有三瀑 登其頂 通望無礙 東望松嶽 西望浿江 海中島嶼 皆歷歷可指 貝葉寺有檀君遺跡 又有三聖殿".

시기를 알 수 없지만 그 이전임이 분명한데, 이건 배경이 패엽사 창건 이후 사세 확장 과정과 관련되고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패엽사 창건 시기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임상원(1638~1697)의 「九月山貝葉寺記」에서는 高僧傳을 근거로, 어떤 고승전인지 알 수 없지만, 신라의 승려가 중국에 갔다가 서역에 유학하고 패엽경을 가지고 돌아오면서 이곳에 보관하면서 유래했다고 했다.[20] 한말 관료이자 대종교에도 관여한 김윤식(1835~1922)은 패엽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한나라 明帝 때 貝葉祖師가 동쪽으로 와서 불법을 전하면서 창건했고, 신라의 승려 雲이 서역에서 貝葉經 다섯 묶음을 가지고 와 이 절에 보관했기 때문에 패엽사라고 이름 붙였다"는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었다.[21] 이를 참고할 때, 대증산의 단군천왕당은 그 이전부터 존재했을 것이며, 패엽사 아래 소봉으로의 이전 또한 신라 때 패엽사 창건 직후로 볼 수 있다. 대증산과 소봉의 舊址가 이미 없어져 알 수 없다는 이예의 보고로 미루어 소증산으로 옮겨 삼성을 합사한 때 역시 조선 전기에 이미 그 시기를 상고할 수 없었지만, 「기우용단의주」를 참고할 때 11세기 초보다는 훨씬 이전이었을 것은 분명하다. 여기서는 그 시기를 신라 말 고려 초로 추정하고자 한다. 이런 점에서 "본래 구월산 上峯에 있었던 檀君天王堂이 佛刹 위에 있는 것을 마땅하게 여기지 않아 사찰 앞 봉우리에 옮겼다"는 성종의 下書(자료

20) 『恬軒集』 권28, 기, 「九月山貝葉寺記」 "(…) 山之勝者 多爲蘭若 以刹而名者凡八所 而貝葉爲最 其住持僧慧映 走漢京 款余而請文其石曰 吾寺之建 舊矣 興廢之跡 可按而數也 蓋肇於新羅 寵於高麗 迨國初永樂而燬焉 其時復之者 爲信圴和尙 碑具在而可徵也 (…) 嘗讀高僧傳 新羅僧入於中國 游於西域而還者間有之 其還也必持其經而來矣 旣寂而留諸所居之處 斯吾東之所以有貝葉也如此者 吾東雖不能傳 中國之人 表而詳之 (…)"

21) 『운양집』 권10, 기, 「寒山寺重修記」 "世稱東國有四名山 九月其一也 昔檀君肇基於禿朴 文殊現身於五峯 國人重之 以爲神明之區 丙子夏 余登長壽山頂 望見九月 連延海曲 峯秀壑明 相次如幢幡寶蓋 意其中多仙靈之遺跡 遂杖屨而西 信宿於貝葉寺中 探尋前躅 搜羅異聞 遂及於本寺興廢之故 皆云無寺則山亦荒廢 向非荷隱願力 幾乎無寺矣 玆寺舊名貝葉 昔漢明帝時 貝葉祖師東來傳業 卓錫於玆 以其名名之 其刱立之久 迨與白馬相埒 而新羅高僧雲遊西域 持貝葉經而來 自是更名爲貝葉 羅麗之際 常爲王者願堂 (…)"; 권3, 시, 海西持斧集, 「貝葉寺」 "東方聞法早 白馬幾千春【漢明時 貝葉祖師東來傳法 刱寺於九月山 與白馬並時】 貝葉殘經存【新羅時有僧雲遊西域 持貝葉所寫經五編而來 藏於是寺 故名貝葉 今移置華藏寺】 龍華古繪陳【古序本寺西壁 有唐人所畵龍華會】 五峯曾現象【寺中故事 文殊大士於寺後五峯現身說法 遂爲塞山道場】 三聖實生民【九月山爲檀君肇基之地 今有三聖祠 以奉桓因桓雄檀君之祀】 緬想仙靈跡 杳茫不可親". 1721년(경종 1) 건립된 「貝葉寺事蹟碑」가 전하는데, 본고의 작성에는 참고하지 못했다. 이능화, 『朝鮮佛教通史』, 신문관, 1918; 국립문화재연구소 미술공예연구실, 『사진으로 보는 북한 국보유적』, 문화재청, 2006 참조.

A-2)를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다.[22]

소증산에서 삼성사의 主室인 삼성당에서는 환인・환웅・단군을 모셨다. 대증산과 소봉에서는 삼성이 합사되었을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여기에서 주 신격은 환인천왕으로 남향하여 모셔졌고, 환웅천왕은 서향, 단군천왕은 동향하고 있었다. 합사의 결과였는데, 구월산에서의 세 신격이 조-부-자의 관계로 설정된 것 또한 이와 관련하여 검토할 수 있다. 1428년(세종 10) 6월 우의정으로 치사한 柳寬(1346~1433)의 상서에는 "북벽에 檀雄天王, 동벽에 檀因天王, 서벽에 檀君天王이 모셔져 있다"고 했다.[23] 이예의 보고와 비교하여 환인(단인)천왕과 환웅(단웅)천왕의 위차가 바뀌어 있는데, 이것이 1420년대와 1470년대의 상황을 반영한 것인지, 『세종실록』의 오기인지는 자세히 알 수 없다. 하지만 대체로 중앙에서 남향하고 있는 환인(단인)천왕을 중심으로 좌우에 환웅(단웅)천왕과 단군천왕이 배향하고 있는 모습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삼성사에서 단군은 주향이 아니라 종향되고 있어 평양의 檀君廟 건립 이전에 기자사당에서 남향하고 있던 기자에 비해 서향하고 있던 단군과[24] 비교할 수 있다.

환인・환웅・단군의 신위가 어떤 명칭으로 모셔졌는지를 살펴볼 필요도 있다. 삼성사에 모셔진 신격은 15세기 후반 이예의 보고에 인용된 『관서승람』에서는 환인・환웅・단군으로, 『삼성당사적』에서는 환인천왕은 남향, 환웅천왕은 서향, 단군천왕은 동향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삼성당사적』을 인용한 자료 A-3 이예의 보고도 마찬가지다. 앞서 언급한 유관의 상서에는 "북벽 단웅천왕, 동벽 단인천왕, 서벽 단군천왕이 모셔져 있다"고 했고, 1452년(단종 즉위) 6월 경창부윤 李先齊(1390~1453)의 상서에는 "북벽에 단인

22) 아사달산신인 단군만을 모셨던 檀君天王堂이 두 차례에 걸친 이건 결과 최종적으로 환인・환웅을 함께 모시는 三聖祠로 변화했다는 사실은 단군신화 및 전승의 연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환인・환웅이 檀因・檀雄으로도 불린 것은 그 전승이 檀君을 중심으로 정리되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미 지적된 바 있듯이 『삼국유사』와 『제왕운기』에서의 신화가 환웅 또는 檀雄天王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단군천왕당에서의 전승과 차이가 있었을 개연성을 지니고 있으며, 3대 부계 또는 5대 비부계 전승의 형성 시기도 단군천왕당에서 삼성사로 재편된 시기와 관련하여 검토할 여지도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추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유신앙과 불교의 관계에 대해서는 徐永大, 「葛蠟地小考」, 『종교학연구』 2, 한국종교학연구회, 1979 참조.

23) 『세종실록』 권40, 세종 10년 6월 을미(14일) "右議政仍令致仕柳寬上書曰 (…) 嶺之腰有神堂焉 不知創於何代 北壁檀雄天王 東壁檀因天王 西壁檀君天王 文化之人常稱三聖堂 其山下居人 亦稱曰聖堂里 (…)"

24) 『세종실록』 권29, 세종 7년 9월 신유(25일).

천왕, 동벽에 단웅천왕, 서벽에 단군천왕이 모셔져 있다"고 했다.[25] 『고려사』와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삼성사에 대해 "檀因・檀雄・檀君祠가 있다"고 서술했다.[26] 각 자료에 실려 있는 명칭은 그 자체가 해당 자료의 저술 또는 보고된 시점에 삼성사에 봉안되어 있던 삼성 神像 또는 위패의 명칭일 가능성이 있다. 즉 조선 전기에 삼성의 위패는 문화현에서 삼성사 치제를 주도하는 세력과 황해도 유생 등을 비롯한 유교관료집단 간의 길항 관계가 형성되었고, 그에 따라 위패의 粉面에 환인・환웅・단군, 환인천왕・환웅천왕・단군천왕, 단인・단웅・단군, 단인천왕・단웅천왕・단군천왕이 墨書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천왕'의 경우에는 불교적인 색채가 짙어 유교의례로 主祭하던 조선시대에 논란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추론은 조선 중기 이후 삼성사 위패에 대한 일련의 논의과정에서 보강할 수 있다. 1597년(선조 30) 6월 예조에서는 선조에게 「三聖祠祝文分牌單字」를 올렸다. 삼성사 제사에서 그 위패에 '三聖堂'이라고만 썼는데, 환인・환웅・단군에 대한 것은 축문에 넣으라는 전교가 있었기 때문이다. 예조에서는 "환인・환웅・단군 삼성의 위판이 각각 있고, 사적도 같지 않아 축문도 각각 짓는 것이 마땅하여 예문관에서 牌를 나누었다"고 설명했지만, 결론은 삼성을 하나의 위패에 모시고 1건의 축문으로 제사하도록 결정되었다.[27] 1660년(현종 1)의 삼성사 개수에서도 마찬가지다.[28] 그런데 이때 황해감사 鄭萬和(1614~1669)는 삼성의 위판 중에 桓雄位版의 '桓'자가 원래 '檀'자임이 밝혀져 위판을 '檀雄位版'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장계하였다. 제관이 삼성사 위판 중에 환웅을 모신 위판의 분칠한 면을 물에 적신 후 자획을 살펴보

25) 『단종실록』 권1, 단종 즉위년 6월 기축(28일) "慶昌府尹李先齊上書曰 (…) 山之東嶺高大邐迤 其山之腰 有神堂 不知創於何代 北壁有檀因天王 東壁有檀雄天王 西壁有檀君天王 縣人稱之曰 三聖堂 其山下人居 亦稱曰 聖堂里 (…)"

26) 『고려사』 권58, 지12, 지리3, 서해도, 풍주, 유주 "三聖祠【有檀因・檀雄・檀君祠】"; 『세종실록』 권152, 지리지, 황해도, 풍천군, 문화현 "三聖祠 在九月山聖堂里小甑山【有檀因・檀雄・檀君祠】".

27) 『선조실록』 권89, 선조 30년 6월 경오(11일) "禮曹啓曰 因藝文館三聖祠祝文分牌單字 所謂錢山 在於何處乎 前者如是爲之 未能記憶也 設使爲之 只書三聖堂 而其以下則似當入於祝文中事傳教矣 輿地勝覽考之則錢山在文化縣北十里 三聖祠亦在文化九月山 卽桓因桓雄檀君之祠 春秋降香祝致祭 又水旱 祈禱輒應云 本曹據本道粘移 來秋爲始 依例擧行事 已爲啓下 而桓因桓雄檀君三聖 各有位版 事迹不同 祝文各製宜當 故藝文館如是分牌矣 傳曰降香則爲之 而決定前則無此矣 錢山亦無之 更察爲之."

28) 『현종실록』 권3, 현종 1년 9월 정사(5일).

던 중에 '환웅천왕'이 아니라 '단웅천왕'으로 쓰여 있었음을 발견했다. 이에 위판뿐만 아니라 축문에 쓰인 '환웅'을 '단웅'으로 고쳐야 한다는 장계를 예조를 통해 올렸고, 현종은 이를 수용했다.[29] 환웅의 위판이 '환웅천왕'에서 '단웅천왕'으로 바뀐 것이다. 그렇다면 환인 역시 '환인천왕'에서 '단인천왕'으로 바뀌었을 것인데, 확인되지 않는다. 삼성의 위패 중 환인과 환웅의 그것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30]

조선 초까지 삼성사 제사는 고려의 舊例에 따라 유사섭사로 설행되었을 것이다. 삼성은 神像(木像)으로 모셔졌다. 하지만 태종 때 河崙(1347~1416)이 諸祠의 목상 혁파를 건의한 이후 위패(신위)로 바뀌었다. 단종 즉위와 더불어 삼성사에서의 국가 제사를 건의한 이선제의 상서에서 그 모습을 짐작할 수 있다. 그는 삼성사에 봉안된 삼성의 신상을 "중국 조천궁에 있는 列宿 像과 같게 하거나, 三叉河 海神 모양과 같이 하여 좌우에 나누어 앉혀서 존숭하기를 예전과 같이 할 것"을 건의했다.[31] 나무로 조성했던 신상은 대체로 도교 또는 민간신앙에서의 신상과 유사한 계통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1429년(세종 11) 평양에 단군묘가 건립되어[32] 삼성사는 국가 제사에서 배제되었고, 1472년(성종 3)에 비로소 立廟되었는데 제사의 내용과 형식이 변화했다. 여기에는 평양 단군묘에서의 치제와 형식으로 통일하려는 의도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선 초기부터 유교 관료들을 중심으로 거론되었을 환인·환웅, 二聖에 대한 불신은 삼성사를 국가 제사의 대상으로 편제하

29) 『서원등록』, 현종 원년 10월 10일, 〈三聖祠桓雄之桓字以檀字改〉 "黃海監司鄭萬和狀啓 三聖祠桓雄位版粉面 書所非桓字乃檀字 今此改題時何以爲之事 據曺啓目 粘連啓下是白有 亦觀此狀啓 三聖祠位版 祭官以水浸濕其粉面 細審其字劃 則桓雄天王粉面所書 非桓字 乃是檀字 今此改題時 仍舊題而書以檀字爲白乎 喩急速定奪亦爲白有臥乎 所位版本以檀字書之 則祝文書以桓字 必是中間誤書以致 襲謬少無可疑是白置 改題時當依舊題 以檀書塡爲白乎旀 祝詞中桓字乙良 令大祝改以檀字之意回移何如 啓依允分付香室".

30) 조선 후기에도 삼성사의 위패와 관련한 논의는 지속된다. 특히 1789년(정조 13)에는 문화현에서 작성한 『三聖祠節祭致祭時祭品祭式修成冊』을 황해도관찰사 李洪載(1729~1794)가 보고하자 이를 토대로 작성된 「三聖祠祭品祭式收議」를 가지고 정조와 대신 및 내각 제신들이 삼성사 제사의식을 개정했는데, 여기에 삼성의 위패와 관련한 논의도 포함되어 있다. 『일성록』 정조 13년 6월 경신(6일); 『정조실록』권27, 정조 13년 6월 경신(6일); 『번암집』 권29, 獻議, 「三聖祠祭儀議」. 이에 대해서는 별고인 「조선 후기 三聖祠 제사의 재정비」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31) 『단종실록』 권1, 단종 즉위년 6월 기축(28일) 李先齊 上書.

32) 『세종실록』 권154, 지리지, 평안도, 평양부.

는 데 논란거리가 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들이 조→부→자의 관계로 설정되어 있지만,[33] 성리학자들에게 환인과 환웅은 사실 역사적 존재로서 이해되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삼성사에서 이들의 제향에 대해서는 이미 조선 초부터 이견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사실 평양에 단군묘가 건립되어 단군 위패가 그곳으로 옮겨간 후 삼성사가 국가 제사에서 배제된 이유 역시 이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삼성 위패의 명칭에 대한 변동성, 단군과 환인·환웅에 대한 치제 여부 등은 조선 전기 삼성사 운영의 안정성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삼성사에는 삼성당 이외에 使者를 모신 配享廳, 제사를 준비하는 典祀廳, 기우를 위한 祈雨龍壇 등이 있었다. 구월산 정상인 사왕봉에 있던 사왕사에서는 도교 의례인 초례가 설행되었는데, 단군천왕당과 관련된 시설로 파악된다. 배향청은 삼성당 서쪽에 있었는데, 이예의 보고문에서 확인되는 夾室로 짐작된다. 여기에는 중앙에 구월산대왕, 왼쪽에 土地精神, 오른쪽에 四直使者가 위패로 모셔졌는데, 모두 남향하고 있었다. 구월산대왕은 구월산 산신을 뜻하는데, 아사달산 산신인 단군을 지칭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대증산과 소봉에서 별개로 모셔졌던 단군천왕을 소증산의 삼성사에서 환인·환웅 천왕과 합사하게 되면서 종향되는 불편한 결과를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 구월산대왕을 주향으로 모시는 배향청을 별도로 건립·운영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소증산의 신당에는 앞서 두 곳에는 없던 전사청도 새로 세워졌다. 이곳은 제관들이 재숙하고 제물을 준비하던 곳으로, 1458년(세조 4) 문화현령 梅佐(생몰년 미상)가 단청을 하는 등 삼성당을 수리하면서 그 아래에 초옥 수 칸을 지어 만들어졌다. 평소에는 승려들이 거주했다는 것으로 미루어 패엽사에서 관리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또 신당에서 백여 보 떨어진 곳에는 기우용단이 있었는데, 1006년 설행되었던 「기우용단의주」가 15세기 후반까지 남아 있었다는 사실에서 그 제의 내용을 일정 부분 파악할 수 있다.

한편 조선 후기에 삼성사를 改修하는 가운데, 그 모습을 추측할 수 있는 언급이 있어 참고할 수 있다. 1789년(정조 13) 6월 삼성사의 祭品과 祭式을 개정하면서

33) 삼성사의 三聖은 일단 형식에서 불교에서의 삼존불과 비교할 수 있다. 또 祖-父-子로 설정된 관계는 고구려의 부여신-등고신이 母子 관계로 모셔지고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있다. 이들은 다중적 제의라는 측면에서 공통적인데, 이 같은 문화현상을 동아시아 주변문화와 관계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삼성사를 수리했는데, 황해감사 李洪載(1729~1794)의 보고에서 사당 왼쪽 등성이 아래 114보 떨어진 곳에 安香廳, 그 아래 160보 떨어진 곳에 암자, 神門 밖 오른쪽에 歇所 등이 확인된다.[34] 또 담장은 원래 돌을 포개 쌓았는데, 이후 흙으로 쌓아 정결해 보이지 않자 이때 다시 돌로 쌓았다고 한다. 안향청은 매년 봄가을에 설행하는 제사에서 사용하는 향을 비롯하여 제기를 안치하던 곳이다. 암자는 수직하는 守僕이 없던 삼성사를 지키기 위해 給復하며 모집한 승려 3명이 머물던 곳이다. 헐소는 享祀 때 제물을 먼저 안배하거나 혹 비를 만나면 享官이 머물던 곳이었다. 이들과 전사청의 관계가 어떤지, 조선 전기에도 있었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이 건물들이 삼성사의 부속건물이었음은 틀림없다.

〈표 1〉 삼성사의 구조와 부속시설

조선 전기		조선 후기	
三聖堂	북벽 檀因天王, 동벽 檀雄天王, 서벽 檀君天王	三聖堂	대체로 조선 전기와 같음
	1450년 문화현령 申孝源 중창		
	1458년 문화현령 梅佐 단청 보수		
神位	木像(조선 초기)	神位	位牌
配享廳	삼성당 서쪽 위치	安香廳	사당 왼쪽 등성이 아래 114보 떨어진 곳에 위치
	夾室로도 불림		제사에서 사용하는 향을 비롯하여 제기를 안치
	중앙 구월산대왕, 왼쪽 土地精神, 오른쪽 四直使者가 모두 남향하여 위패로 모셔짐		
典祀廳	제관들이 齋宿하고 제물을 준비하던 곳	암자	안향청 아래 160보 떨어진 곳에 위치
	수칸의 草屋		삼성사 관리를 위해 給復하며 모집한 승려 3명이 머물던 곳
	평소 승려들이 거주		
祈雨壇	신당에서 백여보 떨어진 곳	歇所	神門 밖 오른쪽에 위치
	1006년 설행되었던 「기우용단의주」		享祀 때 제물을 안배하거나, 비를 만나면 享官이 머물던 곳

34) 『일성록』 정조 13년 6월 기사(15일) "命海伯 三聖祠墻垣更加精築 戶曹啓言 文化縣三聖祠安香廳之僻在一隅 守僕房之有無 歇所之誰某居 接墻垣之初不精築 修改之際 營邑之不能着意擧行委折 依下敎發關査問矣 卽接本道監司李洪載回移 則以爲祠宇處於山巓 基址傾仄更無餘地 故安香廳自初建於祠宇左脊下百十四步之地 本祠舊制元無守僕守直之事 故初無房室 而募僧三人 給復留直 故菴在安香廳下一百六十步 歇所則左於神門外右邊 而每於享祀時祭物先爲安排 或値雨水 則享官亦爲住接 墻垣則當初不用土墁 累石架築者 爲慮山頂偏受風雨務從堅緻 而外面不精 故今番修改 則稍變舊制 量宜改築云 祠宇旣建山巓 則安香廳之處在一隅 雖似回僻必由地形之從便 歇所之祭物先排 享官住接 守直之構 置菴子募入僧徒 亦是本祠古例 則竝令仍舊貫施行事甚便當 墻垣則因其累石之舊制 更加精築事 另飭該邑 着意擧行之意 請分付道臣 允之."

四王寺	구월산 정상 사왕봉에 위치 星宿醮禮	담장	돌을 포개 쌓거나, 흙으로 쌓음

삼성사에서 祭儀가 어떻게 설행되었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다. 儀物의 설치 여부와 강향치제한 의궤도 알 수 없다는 이예의 보고 역시 그 사정을 짐작하게 한다. 평양에서의 단군사당 건립에 따라 삼성사가 국가 제사에서 제외된 사실과 관련이 있다. 또 하륜의 건의로 神像을 위패로 바꾼 1400~1402년 이후 의물과 의궤가 고려시대의 遺制에서 유교의례로 바뀐 사실과도 관계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국가 제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우・기청할 때 縣官이 朝服을 갖추어 제사 지내고,[35] 제물로 白餠・白飯・폐백・實果 등이 사용되고 있다는 이예의 보고를 참고할 때, 그런 의례와 제물은 고려 이래의 유습을 따른 것이라고 짐작된다. 제기는 본래 금은으로 만든 것을 사용했으나, 고려 말 왜란의 피해 후 사기로 변통되었다가 1458년 鍮器로 바뀌었다.

삼성당과 부속시설에서는 각각의 치제가 이루어졌다. 제물들을 살펴보면, 사왕사에서는 素饌의 초례가 설행되었다. 기우용단에서는 고려시대 이래 '餠・飯・酒와 白鵝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흰 거위는 후대에 白雞로 바뀌었다. 또 이예는 기우용단의 제물로 돼지를 쓰지 않는다고 특기하고 있다. 삼성당에서의 제물은 白餠・白飯・폐백・實果 등이 언급되고 있는데, 희생이 올려졌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예는 기우용단의 제물을 언급하면서 닭・돼지를 도살하여 신령이 싫어했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고 반문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삼성당 제사에 닭과 돼지가 제물로 올려졌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후대에 숫돼지가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참고할 수 있다.[36]

소증산의 삼성사는 堂宇의 훼손으로 수차례 중창과 보수가 이루어졌다. 이예의 보고문에서도 나라에서의 봄가을 제사가 중단된 후였음에도 불구하고, 1450년(세종 32) 문화현령 신효원의 중창과 1458년 매좌의 단청 보수가 확인

35) 세조 때에도 평양의 檀君殿・高句麗始祖殿・箕子殿・九津溺水・平壤江 제사와 文宣王 釋奠祭에서 時服을 착용하는 관습을 따라 제복으로 고치는 조치가 취해졌다. 『세조실록』 권15, 세조 5년 3월 계사(11일).
36) 삼성당 제사의 제물에 대해 이예의 보고문에 희생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 전사청에서 승려들이 齋宿하며 제물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희생이 사용되지 않았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지만, 기우용단의 예를 볼 때 그렇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된다. 국가 제사에서의 설행과 관계없이 문화현에서 삼성사 운영에 관계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특히 1458년에 매좌는[37] 삼성당을 단청하고, 제사 준비와 관리를 위해 전사청을 건립하는 한편 제기를 鍮器로 정비했는데, 이것은 1456~1459년 역대시조묘로서 평양 단군묘의 정비, 1460년 국왕의 단군묘 친제 등 단군제사의 정비와도[38] 일정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	삼성사 위치와 이건	◆	문화유씨 선산
■	패엽사	▲	아사봉
⬟	사왕사	▼	문화현 고현(古縣)
⬢	당장경		

〈그림 1〉『광여도』「문화현」(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37) 梅氏의 본관은 충주로 중국 제남에서 전래한 賜姓으로 확인된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권14, 충청도, 충주목, 성씨 참조. 梅佐는 집현전직제학을 지낸 金汶의 제자로 1441년 金乙玄을 대표로 한 사신단에 포함되어 명나라에 다녀왔고, 강음현감 등을 지냈다. 『세종실록』 권92, 세종 23년 4월 갑술(8일) 및 권119, 세종 30년 3월 무술(13일); 『문종실록』 권4, 문종 즉위년 10월 정해(17일). 신효원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38) 김성환, 「세조의 평양 巡幸과 檀君墓」, 『韓國史學史學報』 19, 한국사학사학회, 2009(김성환, 『朝鮮時代 檀君墓 認識』, 경인문화사, 2009 재수록).

3. 고려시대 삼성사 제사의 사례

삼성사는 영험이 있는 국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신당 안팎에 까마귀와 참새들이 깃들지 않았고, 고라니와 사슴도 들어오지 못했다고 한다.[39] 그 아래에 있는 마을이 聖堂里로 불릴 정도였다. 조선 전기까지 성당리에 인가가 조밀하게 형성되어 있었다는 사실로 미루어 그곳에서는 봄가을 치제 이외에 무속을 중심으로 여러 행사와 마을제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측된다.[40]

고려시대 자료에서 단군사당의 존재는 『제왕운기』에 유일하게 실려 있다. 또 조선 전기의 『세종실록』·『고려사』 지리지에서는 삼성사의 존재가 확인된다. 구월산에 사당이 건립되어 치제되었던 까닭은 단군이 평양에서 이곳으로 옮겨온 후 천여 년을 통치하던 영역의 중심이었고,[41] 산신이 되어 이후 수천여 년 동안 구월산 자락의 여러 고을을 관장했다는 이해에 토대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삼성사는 주향에 관계없이 단군이 강조된 檀君祠 또는 檀王祠,[42] 檀君廟,[43] 檀祠로도[44] 불렸다. 후자에서는 삼성의 명칭 중에 환인과 환웅을 단인·단웅으로 기록하고 있다.[45] 이것은 단군을 의식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웅녀가 매양 잉태하기를 呪言한 檀樹를 중시한 결과였다.[46] 결국 단군전승의 유형 중에서 『본기』 또는 『제왕운기』 유형의 중심 지역이 구월산이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47] 나라에서는 해마다 봄가을로 향과 축문을 내려 제사를 지냈는데,

---

39) 『세종실록』 권40, 세종 10년 6월 을미(14일) 柳寬 上書.

40) 산신신앙과 무속의 관계는 삼척 태백산천왕당의 신라공주 烏金簪神을 모시는 태백산산신제의 退牛 습속과 무속 관계를 참고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김성환, 「태백산산신 옥도검(玉刀鈐)과 삼척 오금잠제(烏金簪祭)」, 『한국전통문화연구』 21, 한국전통문화대 전통문화연구소, 2021 참조.

41) 『삼국유사』 권1, 기이1, 「고조선[왕검조선]」; 『기언』권7, 상편, 「送海西觀察使詩序」 "西海 古檀君之治 句驪南境 (…) 其詩曰 海甸葆澤檀君之墟 大岬小岬防海之砠 (…)"

42) 『봉촌집』 권2, 칠언율시, 「送金信川」.

43) 『번암집』 권16, 시, 「九月山歌寄贈李公會行軒」.

44) 『사가시집』 권21, 「送文化李使君[文興]」.

45) 『세종실록』 권152, 지리지, 황해도, 풍천군, 문화현; 『고려사』 권58, 지12, 지리3, 서해도, 풍주, 유주.

46) 『세종실록』권40, 세종 10년 6월 을미(14일) 柳寬 上書; 『단종실록』 권1, 단종 즉위년 6월 기축(28일) 李先齊 上書. '檀'과 '桓'이 본래 '박달', '밝다'와 상관성을 가진 音譯에서 비롯되어 혼용되었다는 견해도 있다. 허흥식, 앞의 글, 1999, 139면.

47) 『제왕운기』에서 고조선에 관한 서술은 三聖祠가 있는 문화현 출신인 柳璥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이승휴는 1264년(원종 5) 이장용·류경 등의 추천으로 관직에 들어설 수 있었고, 1280년(충렬왕 6)

정작 고려시대에 삼성사에서의 치제 내용을 살펴볼 자료는 거의 없다.

삼성사 제사 내용은 1472년(성종 3)에 있었던 황해도관찰사 이예의 보고에서 처음 확인된다. 1006년(고려 목종 9) 기우용단에서 행해졌던 「기우용단의주」가 그것이다.[48] 기우용단이 삼성사의 부속시설이기 때문에 이곳에서의 기우제 역시 삼성사 제사로 포함할 수 있다. 『고려사』에서는 1116년(예종 11) 4월 국왕이 서경에 머물면서 구월산에서 기우제를 지낸 사실을 싣고 있다.[49] 이 역시 기우용단에서 이루어졌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三聖에 대한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삼성사 제사로 포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점에서 고려 말에 은율현감으로 삼성사 제사를 참관했던 羅繼從(1339~1415)의 사례를 주목할 수 있다.

라계종은[50] 충정왕 때 선공부령을 지낸 羅織의 아들이고, 1355년(공민왕 4) 李穀(1298~1351)의 딸과 혼인하여 목은 이색과도 인척관계였다. 1357년 여름에는 국자감시를 위해 서울에 머물던 정몽주와 수개월을 함께 수학했고, 1360년 국자감시에 9인으로 합격했다. 1362년 우시중 洪彦博(1309~1363)과 지도첨의 柳淑(1316~1368)이 주관하여 詩賦를 과목으로 치른 과거에서[51] 17인으로 합격했다. 1364년 부친상을 치른 후 1367년(공민왕 16) 춘추관검열을 시작으로 수찬・감찰규정・성균관박사・좌사의대부・진현관직제학 등을 지냈다. 1374년 8월 예문관제학으로 있으면서 공민왕에게 '繼從'이란 이름을 하사받았다. 10월 공민왕이 시해되자 출생지인 고봉현 松川으로 돌아가 나오지 않고 송은이라 자호하며, 매년 1월에 공민왕을 모신 현릉을 참배했다. 1375년(우왕 1) 언양으로 유배가는 정몽주를 전송했고, 이후 예문관제학・전리판서・우대언

파직되었을 때는 1년을 넘게 투병하던 류경이 그를 찾아 위로할 정도였다. 『제왕운기』에서 구월산 삼성사의 위치를 註釋하고 있는 것은 이와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다. 『동인지문오칠』 권9, 「庚辰坐言事見罷謝柳中贊璥扶病來唁」(이승휴) "元侯浪出未曾聞 何況經年病杜門 扶掖見臨隣里怪 到頭傳說士林喧 豈唯頑品攄新價 當有來賢尙直言 見癥此身翻可賀 値公親唁枉高軒". 『제왕운기』의 국사 편년에 대해서는 박대재, 「이승휴의 국사편년과 역사의식」, 『민족문화연구』 94,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22 참조.

48) 강만길, 「李朝時代 檀君崇拜一實錄記事를 中心으로」, 『李弘稙博士回甲紀念 韓國史學論叢』, 신구문화사, 1969.

49) 『고려사』 권14, 예종 11년 4월 기사(6일); 권54, 지8, 오행2, 금.

50) 라계종의 행력에 대해서는 『죽헌유집』 하, 부록, 연보 및 행장[吉再] 참조. 여기서는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의 『죽헌유집』을 이용하였다.

51) 『고려사』 권73, 지27, 선거1, 과목1, 공민왕 11년.

・소부판사를 제수했으나 나가지 않았다.

그는 1386년(우왕 12) 은율현감을 제수했는데,[52] 수차례의 관직 제수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폄직된 것이라고 한다. 1390년(공양왕 2) 좌상시・예문관 제학을 지내고 1391년 병을 핑계로 사직하고 송천에서 『野史會通』을 저술했으나, 전하지 않는다. 1392년 조선 건국 후 정몽주가 암살되자 곡을 하며 슬퍼했고, 10월에 나주 동삼방 석간동으로 이사하여 집 주변에 松竹을 심고 竹軒居士라고 자호했다. 이후 태조가 수차례 출사를 권했으나 응하지 않았다.

B-1. 우리나라는 천하의 동쪽에 있는데 木德의 왕성한 운수에 속해 있어 元氣가 시작되는 곳이자 仁理가 모이는 곳입니다. 이 때문에 단군이 開國한 때부터 我朝(고려)에 이르기까지 수천백년을 지내오면서 仁聖의 군주들이 계승하고 仁賢의 선비들이 배출되어 비록 中華의 鄒魯之鄕이라도 이같이 번성하지 못했습니다.[53]

자료 B-1은 수찬 함 아무개[咸某]에게[54] 온 편지에 대한 답서 중 일부이다. 여기에서 그는 천하 동쪽에 위치한 고려가 오행적인 역사관에서 木德의 기운을 가지고 있으며, 단군이 개국한 이래 지금까지 수 천 년이 지났음을 밝히고 있다. 그는 단군에서 출발하여 당대까지의 역년관을 지니고 있었다. 다음의 자료 B-2는 1386년 9월 19일 친구인 상서 嚴櫟(생몰년 미상)이 제관으로 삼성사의 歲祭를 설행하자 그를 만나러 갔던 감회를 읊은 것이다.

B-2. 은율에서 근무하던 9월 19일 尙書 嚴櫟이 三聖祠【始寧 구월산에 檀因・檀雄・檀君을 모신 사당이 있다】에서 歲祭를 행하는 것을 기뻐하며 방문하다

南浦鴻賓月欲虧　　南浦의 반가운 객 달 기울 때 만날까 했더니

52) 고구려의 栗口 또는 栗川이었다가 고려 현종 9년 이름이 바뀐 은율은 풍주에 來屬되어 있다가(『고려사』 권58, 지12, 지리3, 서해도, 풍주, 은율현) 1396년(태조 5) 감무가 파견된 것으로 확인된다. 『태조실록』 권10, 태조 5년 9월 계미(28일); 『세종실록』 권152, 지리지, 황해도, 풍천군, 은율현.

53) 『죽헌유집』 상, 서, 「答咸修撰書」 "(…) 我國居天下之東 屬於木旺之運 元氣之所始 仁理之所會 是以自檀君開國 逮至我朝歷數千百歲 仁聖之君繼作 仁賢之士輩出 雖以中華鄒魯之域 莫此爲盛 (…)"

54) 수찬 咸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 라계종은 어느 해 2월 그가 살고 있던 서쪽 마을(西隣)에 다녀왔는데, 이때 지은 시가 전한다. 『죽헌유집』 상, 「仲春遊西隣[咸修撰所居]」 "雨餘散步到西籬 一夜春流滿綠池 元亮消憂惟有酒 放翁沉病更無詩 遐情鳥沒雲歸際 至理花開月上時 靜觀萬物皆和氣 唉彼窮民久阻飢".

故人一會本無期	옛 친구 본래 기약 없이 잠깐 만났다네
煩君試酌龍山酒	그대는 번거로이 龍山酒를 마시고
病我羞題鷲嶺詩	나는 병들어 鷲嶺을 詩題함이 부끄럽네
已喜銓衡收俊彦	이미 과거에서 뛰어난 인재로 뽑혀 기뻐했는데
復期舟楫濟艱危	충신으로 나라의 艱危를 구하길 다시 기약하네
從容須盡清宵話	맑은 날 밤 조용히 나누는 대화에 깊이 감사하고
明日忽忽更別離[55]	내일 바삐 다시 이별해야 한다네

자료 B-2에서 고려시대 삼성사와 관련한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사당의 명칭은 고려시대부터 삼성사로도 불렸고, 거기에 모셔진 삼성은 단인·단웅·단군으로 불렸다는 사실이다. 단인·단웅·단군의 명칭이 『세종실록』·『고려사』 지리지와 곧 검토할 유관과 이선제의 상서에서 확인되지만, 조선 전기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런데 『죽헌유집』에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고려시대 구월산 일대의 단군전승이 『제왕운기』에 수록된 신단수를 중심으로 하는 『본기』 유형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신단수의 영향 범위가 단웅을 넘어 단인까지 확장되고 있다는 점에서 『본기』 유형의 전승에서 수목숭배신앙의 범위는 단군의 출생을 배경으로 한 것에 머문 것이 아니라 상제 단인까지 확대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것은 앞서의 논의를 연장하여 삼성사에서 환인·환웅이 단군과 합사되어 단인·단웅으로도 불렸던 11세기 초보다 훨씬 이전의 사실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는 9월 19일의 제사가 歲祭로 설행되었다는 사실이다. 세제란 해마다 정례적으로 지내는 제사를 뜻해 자료 B-2는 삼성당에서 매년 봄가을의 제사가 지내졌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세 번째는 제사 성격에 대한 것이다. 1386년 가을 제사는 엄력이 주관했다. 그에 대한 기록이 전혀 확인되지 않지만, 과거에 급제했고 라계종이 친구라고 밝히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동년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행향사로 차정되었을 때인 1386년 가을 그의 관직은 정3품 상서였다. 즉 삼성사 제사가 2~3품의 중앙관리가 행향사로 차정되어 설행하는 유사섭사로 진행되었음이 확인된다.[56] 이 같은 사실을 종합할 때, 고려시대

55) 『죽헌유집』 상, 시, 「殷栗諭中 九月十九日 喜嚴尙書[樑] 行歲祭于三聖祠【始寧九月山 有檀因檀雄檀君祠】 因見訪」.

삼성사 제사는 단인·단웅과 구월산 산신인 단군을 모시고 매년 봄가을에 중앙에서 2~3품 관리를 행향사로 파견하여 설행하는 유사섭사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소재관인 문화현령이나 라계종과 같은 인근 주현의 현령들은 헌관(아헌관 또는 종헌관) 등으로 참여했을 것으로 짐작된다.[57] 이것은 후술할 조선시대 삼성사 제사 역시 유사섭사였지만, 황해도관찰사가 주관하고 문화현령이 헌관으로 설행하는 국가 제사였던 사실과 비교된다.

4. 평양 檀君廟 건립에 따른 삼성사의 廢置 논란

조선 건국과 더불어 국가 제사에서 단군 치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始興教化之君인 箕子에 앞선 東方始受命之主라는 위상에 따른 것으로, 1392년(태조 1) 8월 예조전서 趙璞(1356~1408)의 상서에서 비롯되었다.[58] 장소는 평양이 거론되었는데, 단군의 도읍지였기 때문이다.[59] 그렇지만 국가 제사 제도의 미비로 당장 실행되지 못했다. 1412년(태종 12) 영의정부사 하륜도 단군제사를 청했는데, 역시 그 이유는 동방의 시조였기 때문이다. 그는 '朝鮮檀君'을 기자와 함께 한 사당에서 竝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60] 여기서 '조선단군'이란 기자를 비롯하여 역대 국가의 시조를 아우르는 동방의 첫 受命之主로서 '都始祖'의 의미를 가진다.[61] 하륜의 건의는 예조에서 검토한 끝에

56) 이런 점에서 甁城 제천단과 마리산 塹城에서의 醮禮와 비교할 수 있다. 김성환, 「고려시대 甁城과 摩利山塹城의 제천단」, 『한국사학사학보』 30, 한국사학사학회, 2014(김성환, 『마니산 제사의 변천과 단군전승』, 민속원, 2021 재수록).

57) 한편 趙云仡(1332~1404)은 1389년(창왕 1) 구월산을 찾아 단군 건국 이후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회고했다. 『동문선』 권22, 칠언절구, 「題九月山小庵」 "山中猶在戊辰雪 柳眼初開已已春 世上榮枯吾已見 此身無恨付窮貧".

58) 『태조실록』 권1, 태조 1년 8월 경신(11일).

59) 『태종실록』 권14, 태종 7년 10월 기축(9일) "平壤府尹尹穆 上便宜事目八條 下政府擬議 (…) 一 平壤自檀君箕子建都之後 爲西北一方本營 又設土官 號曰西都 (…)"

60) 『태종실록』 권23, 태종 12년 6월 기미(6일) "河崙亦嘗建議 請祀朝鮮檀君 禮曹參詳 箕子之祭 宜載祀典 春秋致祭 以昭崇德之義 且檀君實吾東方始祖 宜與箕子竝祀一廟 從之".

61) '朝鮮檀君'은 앞선 趙璞의 상서에서부터 보인다. 『태조실록』권1, 태조 1년 8월 경신(11일). 이후 『세종실록』 지리지에서 단군 유적으로 전하는 삼성사와 참성단의 서술에서 단군은 '조선단군'으로 명명되고 있고, 오례 길례에서도 평양 단군묘에서 설행되던 제사의식 또한 「享朝鮮檀君儀」였다. 『세종실록』 권128, 오례, 길례, 「享朝鮮檀君儀」; 권148, 지리지, 경기, 부평도호부, 강화도호부; 권152,

수용되어 봄가을로 사신을 檀君箕子之廟에 보내 제사하도록 하였다.[62]

그런데 이때의 조치는 불편한 것이었다. 사당의 명칭이 '단군기자지묘'였지만, 사실은 기자사당으로 기자가 주향되어 있던 반면에 단군은 종향되어 있었다. 이것은 "신위는 방의 중앙에서 남쪽을 향한다"는 「享檀君陳設圖」와 다른 것이고, 기자는 매달 초하루와 보름마다 제사하는데 비해 단군은 봄가을에만 제사하는 불합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온서주부 鄭陟(1390~1475)은 같은 사당에서 제사하더라도 단군과 기자가 모두 남향으로 단군이 위가 되고 기자가 다음이 되게 한다면, 나라를 세운 선후가 어긋나지 않아 괜찮다는 의견을 내면서도, 별도로 단군사당을 세워 모순을 해소하자고 상서하여 세종은 이를 그대로 이행하라는 명을 예조에 내렸다.[63] 하지만 그 건의는 실행되지 못하고, 古制를 상고하여 단군과 기자의 廟制는 물론, 삼국시조의 사당을 세워 제사하는 일을 상정하라는 왕명이 예조에 내려졌다.[64] 변계량은 도시조인 조선단군을 중심으로 삼국시조를 한 壇에서 제사하는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수용되지 못했다. 서울에 이들을 모은 별도의 사당을 지어 제사하면 모를까 평양은 아니라는 세종의 의견에 따른 것이다.[65]

이때 역대시조묘의 정비를 위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단군은 물론, 기자·삼국시조·고려태조 등이 그 대상이었다. 역대시조묘는 각국이 도읍했던 곳에 건립되었는데, 평양에는 단군·기자·동명왕의 사당이 건립되었다. 동방의 첫 번째 시명지주로서 이후 역대시조묘를 아울러야 한다는 측면이 강조되면서 기자사당에 合享되기도 했다. 1429년(세종 11) 국가 제사로 삼국시조묘가 설립되어 제사가 이루어지면서 평양에는 고구려시조인 동명왕사당의 건립이 추진되었고, 단군도 기자사당에서 독립시키게 되었다.[66] 그런데 檀君祠로 당연한 것이었지만 거기서는

지리지, 황해도, 풍천군, 문화현. 모두 東方始受命之主로서의 위상에 대한 명칭이었다. 이것은 단군조선이 천자가 分封한 나라가 아니어서 祭天禮를 폐지할 수 없다는 敬承府尹 卞季良의 이해와 상통한다. 『태종실록』 권31, 태종 16년 6월 신유(1일).

62) 『태종실록』 권24, 태종 12년 7월 경자(17일). 예조에서는 국가 제사를 정비했는데, 그 과정에 단군제사도 포함되었다. 1413년 11월 단군은 기자·고려 태조와 함께 中祀에 편재되었고, 그 祝板式도 '국왕'에서 '조선국왕'으로 바뀌었으며, 이듬해 9월에는 단군제사의 儀註가 정해졌다. 『태종실록』 권26, 태종 13년 11월 경진(4일) 및 권28, 태종 14년 9월 무인(8일).

63) 『세종실록』 권29, 세종 7년 9월 신유(25일).

64) 『세종실록』 권37, 세종 9년 8월 병자(21일).

65) 『세종실록』 권37, 세종 9년 9월 기축(4일).

단군을 서벽에, 동명왕을 동벽에 모시고 모두 남향하도록 하였다. 당초 동명왕 사당도 건립을 추진했지만, 동명왕이 단군의 아들이라는 전승이 있듯이 이를 단군사당에 합향하는 것도 불편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서였다. 단군을 중심으로 삼국시조를 한 단에서 제사하자는 변계량의 의견이 일부 반영된 것이다.[67]

하지만 평양에 단군사당을 건립하여 치제하려는 계획은 삼성사와 갈등 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고려 이래 평양의 단군사당(平壤廟)과 문화현의 삼성사에서 치제되었던 단군을 병립시킬 수 없다는 판단에서 정리가 필요했다. 물론 전자는 역대시조묘, 후자는 지역 산신신앙의 측면이었지만, 삼성사에서의 단군 치제는[68] 祀典에서 평양묘에서의 그것과 중복된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이다. 또 삼성사의 제사가 단군에게만 하는 것도 아니고, 환인을 중심으로 단군을 종향하는 것이어서 이를 수용하기에도 어려웠다. 결국 평양에 단군사당을 건립하여 고구려시조인 동명왕과 合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삼성사의 단군은 평양으로 이안되었고, 그 신위 역시 목상에서 위패로 바뀌었다. 고려시대 국가 제사의 대상이기도 했던 산천제사로서 삼성사의 위상이 국가 제사에서 탈락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삼성사에는 이제 단인과 단웅 두 신위만 남겨지게 되었다.

국가 제사에서 삼성사의 존치를 위한 1428년 유관의 상서는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는 본향이 문화현이었고, 상서했을 때는 우의정을 치사한 후여서 삼성사 사정에 비교적 밝았다고 여겨진다. 이때는 삼성사의 단군 신위가 평양으로 옮겨지기 직전이었는데, 논란의 핵심은 단군의 도읍지였다. 기존의 평양과 문화현 장당경 중에 어느 곳을 단군의 주요 도읍지로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전통적인 이해는 첫 도읍지인 평양에 있었지만, 단군 치제와 관련하여 문화현 사람들은 장당경을 단군의 도읍지로 부각시켰다. 전통적인 왕검성 이해에 맞서 유관은 "문화현 동쪽에 藏壯이라는 곳이 있는데, 부로들의 전하는 말에

66) 이에 대해서는 추후 「조선 초기 평양 檀君廟를 둘러싼 단군신화의 전승 양상」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67) 『세종실록』 권45, 세종 11년 7월 무신(4일).
68) 1415년(태종 15) 해주에 행차한 태종은 내시별감을 파견하여 구월산에 제사한 사례가 확인된다. 『태종실록』 권29, 태종 15년 2월 신사(13일) "車駕至海州 發海州倉米豆 分賜隨駕人十日人馬料 遣內侍別監 祭海州城隍及牛耳山九月山西海之神."

단군의 도읍터라고 한다. 지금은 증험할 만한 것이 동서의 卵山뿐이니 유사에 명해 도읍한 곳을 찾아내 그 의혹을 없애게 해달라"고 상서했다.[69]

그의 상서는 보류되어 평양의 단군사당은 삼국시조묘의 정비와 함께 이듬해 평양에 건립되었고, 삼성사는 국가 제사에서 배제되었다. 1436년 말 유관의 조카인 전 판한성부사 柳思訥(1375~1440)은 『역대세년가』의 단군 기록을 근거로 삼성사가 국가 제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재차 주장했다. 단군이 1048년을 다스린 후 아사달산에 들어가 신이 되어 그 사당이 지금까지 남아 있고, 고려의 국가 제사에서 삼성사가 치제되었다는 것이다. 그의 건의는 예조에서 논의되었지만, 역시 수용되지 못했다.[70] 단군의 도읍지로 장당경은 평양에 비교하여 역사성에서 뒤진다고 이해되었기 때문이다.

삼성사의 단군 신위를 평양 단군묘로 옮겨가 삼성사에서의 치제가 중단된 데 대해 문화현의 민심은 크게 흔들렸다. 1420~1421년(세종 2~3)부터 황주·봉산 등에서 시작된 기근과 역병은 황해도 전역에 만연하였고, 황해도관찰사의 보고를 받은 세종은 厲祭를 비롯한 여러 대책 끝에 불교의례인 수륙재까지 허용했다. 하지만 효험을 보지 못했다.[71] 문화현 사람들은 그 원인을 삼성사에서의 단군 위패를 평양으로 이전한 것과 연결짓기 시작했다. 특히 1438~1439년(세종 20~21) 봉산군 書吏 吳成祐가 목격한 문화현 상황은 참고할 만하다.

1452년 6월 이선제의 상서에 실려 있는 증언에 따르면, 문화현에서는 "단군사당을 평양에 옮긴 뒤부터 구월산 산간마을에서 일어난 귀신 모양 같은 검고 괴이한 癘氣가 뭉쳐 있으면서 밤에는 陣을 이뤄 돌아다니는 소리가 들려 사람들이 이를 보고 놀라 피하거나 숨었다"고 한다. 사람들은 이 악귀가 역병의 원인이라고 확신하며 그 원인을 단군사당을 옮긴데서 찾았다.[72] 이에 대해 괴기가 여기를 일으키는 일이 없으며, 문화현 마을에 해를 끼쳤다는 것을

69) 『세종실록』 권40, 세종 10년 6월 을미(14일) "右議政仍令致仕柳寬上書曰 (…) 三聖堂至今猶存 其迹可見 以今地望考之 文化之東 有地名藏壯者 父老傳以爲檀君之都 今只有東西卯山 爲可驗耳 (…) 伏惟 聖鑑裁擇 命攸司講求所都 以祛其疑".

70) 『세종실록』 권75, 세종 18년 12월 정해(26일).

71) 박성지, 앞의 글, 2017.

72) 『단종실록』 권1, 단종 즉위년 6월 기축(28일) 李先齊 上書.

믿을 수 없다는 의견들도 있었지만, 문화현에서는 평양으로 단군이 옮겨졌기 때문에 역병이 생겼다고 믿고 있었다.

이선제가 어떤 배경에서 삼성사의 제반 상황을 담은 상서를 했는지 알 수 없다. 그는 『삼국유사』「고조선」조의 『고기』를 직접 인용하여 단군을 다시 삼성사로 모셔야 하는 몇 가지 이유를 들고 있다. 첫 번째는 단군이 평양을 떠난 지 아득한 세월이 흘러 평양에 연연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는 단군이 장당경에서만 4백여년동안 왕 노릇을 한 후 신이 되었고, 그 후에도 기자의 40여 대, 위만 2世, 고구려 705년, 통일 후 신라 200여 년, 고려 400여 년을 단군이 평양을 떠난 시간으로 상정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평양을 떠난 지 3천여 년이 훨씬 지난 단군을 다시 평양으로 옮겨 동명왕과 함께 제사할 필요가 있을까 반문하고 있다.[73] 이것은 삼성사의 역사성을 드러낸 것으로, 평양과 백악산아사달에서의 어국 1,500년보다 훨씬 많은 세월을 삼성사에서 모셨기 때문에 정통성이 삼성사에 있다는 논리이다. 두 번째는 평양으로 단군이 이안된 까닭에 삼성사가 방치되어 癘疫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그는 邃初의 사람들이 뿌리를 잊지 못해 사당을 세우고 환인·환웅을 단인·단웅으로 고쳐 단군과 함께 삼성이라고 했다고 했다. 그런데 二聖이 방치되자 이에 서운함을 가진 이성이 괴이한 것을 일으켜 역병을 지어 백성들에게 해를 끼치게 되니 문화현 사람들이 원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황해도 일원에 창궐한 역병을 다스리는 방법은 제사를 받지 못하고 있는 단인과 단웅을 다시 제사하여 서운함을 풀어주는 것에 있고, 방법은 단군을 다시 구월산으로 모셔와 삼성을 온전하게 제사하는 것에 있다는 것이다.

이선제 역시 처음에는 오성우의 말을 듣고 조금도 개의하지 않았는데, 앞선 유관의 상서와 비교해보니 서로 모순되지 않았다고 한다.[74] 또 황해도 역병의 뿌리를 끊는 유일한 방법은 聖堂의 神主를 다시 세우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

73) 이선제의 단군 역년은 『삼국유사』의 『고기』를 따른 것으로 짐작된다. 그가 제시한 장당경에서의 400년은 단군 御國 1500년을 평양과 백악산아사달에서의 기간으로 설정한 후의 기간으로, 이를 합쳤을 때 壽 1908歲로 계산된다. 『삼국유사』 권1, 기이1, 「고조선【왕검조선】」.

74) 이선제가 황해도 역병의 원인이 삼성사 단군 위패를 평양으로 옮겨간 것에 있다는 문화현의 풍문에 처음에는 개의하지 않았다는 것은 고려 후기 李奎報나 一然이 「동명왕편」과 『삼국유사』 기이편 서문에서 공자의 不語怪力亂神을 언급하면서도 神異事跡을 긍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한 것과 비교할 수 있다. 『동국이상국전집』 권3, 고율시, 「동명왕편」; 『삼국유사』권1, 기이1, 敍.

것은 이 상서가 이선제 개인의 의견이라기보다 문화현 古老를 대변한 것임을 뜻한다.[75] 하지만 그의 건의 역시 수용되지 못했다. 유관・유사눌・이선제를 대표로 삼성사를 고려시대에 이어 국가 제사에서 존속시키거나, 국가 제사로의 회복을 위해 문화현 사람들의 전개한 3차례에 걸친 노력은 실현되지 못했다. 이것은 고려 이래 평양과 문화현, 두 곳에서 설행되던 단군제사를 모아 한 곳으로 정비하려는 조선 초기 국가 제사의 정비 방향과 관련이 있다고 보인다. 특히 "神人 단군이 하늘에서 내려와 國人의 추대로 왕이 되었다"는 『응제시』 유형의 단군전승과 역대시조묘의 건립 위치를 해당 시조가 처음 도읍한 곳으로 하는 것이 조선의 공식적인 입장이었다고 할 때, 단군사당은 문화현보다 평양에 건립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이후 평양의 단군사당은 역대시조묘의 하나로 국가 제사가 이루어졌고, 의례 역시 정비되었으며,[76] 마침내 국왕의 親祭가 설행되기에 이르렀다.[77] 세조 때 梁誠之(1415~1482)가 국가 제사에서 전국의 악진해독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구월산의 단군사를 포함하려고 했으나, 수용되지 못했다.[78] 황해도 역병 상황은 진전되지 못했고, 문화현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 원인과 해결책은 지속적으로 단군 신위의 평양 이안과 문화현으로의 還安에 맞추어져 있었다. 40여 년에 이르는 황해도 일대의 역병 상황에 대해 자료 A-1의 왕명을 내리기 보름 전에 성종의 다음과 같은 왕명이 황해도관찰사에게 내려졌다.

C-1. 황해도관찰사 李芮에게 下書하기를 "전일에 本道의 惡疾은 무엇 때문에 발병했는가? 諸種의 악질이 어느 고을에서 심했으며, 어떤 증세가 가장 많았는가? 檀君神祠는 전에 어느 곳에 있었고 지금 무슨 까닭으로 이전했는가? 그 제사 지내는 제도는 또 어떠하며, 이제 민속에서도 또 치제하는가? 비록 사사로이 스스로

75) 이선제는 또 천제가 壇樹 아래에 내려와 단군을 낳았다는 것을 怪誕하여 믿을 것이 못 된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반론을 전개하였다. 神人의 출생이 常民과 다르다는 것을 중국의 契・后稷, 우리나라의 신라 박혁거세・고구려 동명왕의 출생담을 들어 설명하며, 이 사실들은 古籍에 실려 사람들에게 별말이 없는데, 유독 단군에 대해서만 괴이하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76) 『세조실록』 권3, 세조 2년 4월 정묘(28일); 7월 무진(1일); 권15, 세조 5년 3월 계사(11일).

77) 『세조실록』 권22, 세조 6년 10월 기미(17일) "上親祭于永崇殿 遂詣檀君高句麗始祖箕子殿行祭"; 김성환, 앞의 글, 2009.

78) 『세조실록』 권3, 세조 2년 3월 정유(28일).

> 치제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금하지 않는 것이 옳다. 국가에서 행하는 厲祭는 본래 어느 곳에 있었고, 常行하는 여제는 또한 어느 곳에 있었는가? 제사를 지내는 節目은 무엇으로 했는가? 그릇됨과 올바름을 막론하고, 민속에서 소원하는 병을 구료하는 것은 어떤 일이며, 민간에서 병을 구료하는 약은 어떤 약이 효험이 있는가? 그것을 모두 널리 물어서 아뢰도록 하라"라고 하였다.[79]

자료 C-1에도 황해도 역병의 심각성이 그대로 나타나 있다.[80] 첫째는 삼성사가 국가 제사에서 탈락한 이후 단군신사에서 사사로이 제사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금하지 않는 것이 옳다는 것이고, 둘째는 옳고 그름을 막론하고 병을 구료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民俗에서의 어떤 방법이든 동원하라는 것이다. 40여 년이 넘도록 만연하고 있는 황해도 일대의 역병을 잡을 방법은 무엇이라도 강구하라는 뜻의 왕명이었다. 그리고 보름 후 삼성사에 대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실을 거론하며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A-1의 왕명이 다시 내려진 것이다.

자료 A-1과 C-1을 볼 때, 성종은 삼성사에 대한 역사부터 移轉, 구조, 제사 내용, 역병과의 관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C-1에서 간파할 수 있듯이 성종은 역병을 퇴치할 수 있다면 국가 제사에서 삼성사 제사를 회복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두 달 남짓하여 조사를 마친 후 이예가 A-2의 보고서를 올리자 성종은 이를 예조에 내려 검토하게 하였고, 예조에서는 의견을 정리하여 올렸다. 즉 단군을 평양으로 옮긴 후 제사가 끊기자 악병이 일어났다는 것은 황탄한 것으로 믿지 못하겠다. 하지만 단군이 아사달산에 들어가 신이 되었다는 『고기』 기록과 구월산의 廟堂에서 예전부터 치제했으니 평양 단군묘의 例에 따라 해마다 봄가을로 향과 축문을 내려 제사를 지내 백성들의 원하는 바를 들어주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었다.[81] 예조의 의견은 그대로 수용되어 평양 단군묘 제사 이외에 1429년(세종 11) 이후

---

79) 『성종실록』 권13, 성종 2년 11월 경술(12일) "下書黃海道觀察使李芮曰 昔日本道惡疾 何因而發歟 諸種惡疾 何邑爲甚 而何證最多歟 檀君神祠 前在何處 而今何故移之歟 其祭祀之制 又何如 今民俗亦致祭歟 雖有私自致祭者 勿禁可也 國行厲祭 本在何所 而常行厲祭 亦在何所歟 行祭節目何以爲之 勿論邪正 民俗所願 救病者何事 民間救病 何藥有驗歟 其悉廣問以啓."

80) 성종은 李芮에게 자료 C-1의 명을 내리기에 앞서 의원에게 약을 가지고 가서 치료하게 하고, 수륙재도 설행하게 한 바 있었다. 『성종실록』 권13, 성종 2년 11월 병오(8일).

81) 『성종실록』 권15, 성종 3년 2월 계유(6일).

중단되었던 삼성사에서의 치제도 국가 제사에 편재되어 中祀를 적용한 「향조선단군의」를 준용하여 설행되게 되었다. 즉 祭品과 祭式은 역대시조묘의 성격을 가지면서도 산신신앙의 유습이 섞인 모습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사가시집』에는 서거정이 문화현령으로 부임하는 李文興(1423~1503)과 송별하면서 그가 檀祠(삼성사) 치제를 설행할 것이라고 읊은 시가 있다.[82] 조선시대 삼성사 제사에 문화현령이 헌관으로 참여했음을 보여준다. 삼성사 제사의 복구는 제사의 효험 때문이 아니라 황해도 일대의 흉흉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되었다.[83] 이것은 자료 A-2의 보고 및 예조의 조치 상황과 함께 이예가 황해도 지역을 순행하여 고로들을 탐문하면서 정리한 악병의 원인과 이에 근거하여 예조에서 작성한 「惡病救療節目」이 같은 날 동시에 보고되고 있음에서 확인된다.[84]

5. 맺음말

조선 전기 삼성사 제사에 대한 전반을 알려주는 자료는 『삼성당사적』이다. 그 逸文이 1471년(성종 2) 11월 황해도관찰사 이예의 보고 문건을 싣고 있는 『성종실록』에 전하여 대강을 알 수 있다. 내용은 조선 초의 사정을 전하고 있지만, 고려시대 삼성사 제사의 현황을 담은 것이라고 파악된다. 먼저 명칭에서 삼성사와 삼성당은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을 듯싶다. 삼성사의

---

82) 『사가시집』 권21, 「送文化李使君[文興]」 "豸角衰冠日 牛刀試刃時 絃謌應有效 琴鶴自相隨 九月山前路 六年別後思 簿書多暇日 爲我酹檀祠".

83) 南孝溫(1454~1492)은 패엽사 승려들과 구월산 삼성사를 찾아 고조선 이래의 역사를 읊었다. 『추강집』 권2, 칠언고시, 「謁師之翌日 從貝葉住僧道釋允中性明義浩登南明峯 就懷古詩一篇 還示一庵」 "檀君昇仙入阿斯 三千年來傳神奇 匹馬短僮尋舊隱 千嶂萬壑處處疑 登登石逕踏無盡 病身全賴杖笻枝 神人不得見平生 探冥討幽鬢如絲 一鳥不鳴風射眼 掩袂不勝前朝悲 周王革殷急賢良 首就箕子訪民彝 天生賢聖無夷夏 胡乃檀君却不知 檀君自執謙謙德 韜光韞彩隱於茲 鼎中烏兔自同穴 紫府九重神飆吹 王代作陳八條 靑丘人物再熙熙 千年山海輸燕虜 衛滿渡浿神器移 東明篡訖寶藏死 茲山出入羅與麗 山呼九月今代名 崔巍神嶽鎭四垂 山前煙火列郡開 海水朝宗日二時 南明峯上赤葉多 千江掌平明琉璃 同來四衲貝葉僧 與余俱事一庵師 同門恩意喜相隨 強起我病勸題詩".

84) 『성종실록』 권15, 성종 3년 2월 계유(6일). 이예의 보고와 예조의 조치 내용은 역병의 지역적 현황과 민심의 정도, 치료 방법 등~~이~~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특히 역병의 원인을 문화현 사람들은 삼성사 제사의 중단에서 찾았지만, 이외에 예전에 棘城에서 戰亡한 원혼들의 원망, 黃州에서 黃天使로 알려진 중국 사신의 횡포에 대한 민원 등에서도 찾아지고 있었다.

경우에는 부속시설을 포함한 祠域 전체를 가리키고, 삼성당의 경우에는 삼성의 신상 또는 위패를 모신 主室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삼성사 창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여기에서는 『삼성당사적』을 토대로 원래는 단군천왕당에서 모셔지고 있던 단군이 패엽사와의 관계에서 두 차례 이건된 후인 11세기 초 훨씬 이전에 소증산의 삼성사에서 환인·환웅과 함께 단군이 合祀되면서 그 모습을 갖춘 것으로 파악했다. 환인·환웅이 단인·단웅으로도 불린 것은 이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단군천왕당의 원래 위치를 대증산으로 비정했고, 그 시기는 추측할 수 없지만 패엽사가 창건되기 훨씬 이전부터였다. 이후 패엽사와의 관계에서 그 아래 소봉으로 옮겨졌는데, 그 시기 또한 구체적인 접근이 가능하지 못하지만 패엽사 창건 직후였을 것이다. 현재의 삼성사는 소증산으로 이건된 결과였는데, 신라 말 고려 초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대증산과 소봉의 舊址는 이예의 보고시점인 1471년에도 확인이 가능하지 못했다.

삼성사는 주실인 삼성당, 단군천왕인 구월산대왕과 土地精神·四直使者를 모신 배향청, 제사를 준비하는 전사청, 기우를 위한 기우용단, 초례가 설행되었던 四王寺 등으로 구성되었다. 주실은 단청으로 장엄을 더 했으며, 전사청이 1458년(세조 4)에 신축되었듯이 부속시설은 필요에 따라 증·개축되었다. 이런 모습은 조선 후기와 비교하여 차이가 있었다. 제의의 내용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기우·기청할 때 縣官은 조복을 갖추었고, 제물로 白餠·白飯·폐백·實果·술·흰 거위(白鵝) 등을 사용했다. 흰 거위는 후대에 흰 닭(白雞)으로 바뀌었고, 기우용단의 제물로 돼지는 쓰지 않는다고 특기하고 있는 사실에서 삼성사 제물로 돼지가 사용되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대체로 고려 이래의 유습이라고 짐작된다.

삼성당에는 삼성을 중국 조천궁에 있는 列宿 像 또는 三叉河 海神과 같이 앉은 모습의 신상(조선 초 이전) 및 위패(조선 초 이후)로 모시고 있었는데, 북벽에는 환인(단인)천왕을 남향으로, 동벽에는 환웅(단웅)천왕을 서향으로, 서벽에는 단군천왕을 동향으로 모셔 환인을 주향으로, 환웅과 단군을 종향으로 하였다. 각 자료마다 삼성의 명칭을 달리하고 있는데, 대체로 해당 자료의 저술 또는 보고 시점에 봉안되어 있던 명칭일 가능성이 있다. 삼성사 제사를 주도하는

세력과 황해도 유생 등을 비롯한 유교관료집단 간의 길항 관계에 따라 변화가 있었을 것이고, '천왕'의 경우에는 불교적인 색채가 짙어 유교의례로 主祭하면서 논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1429년(세종 11) 평양에 단군묘가 건립되면서 삼성사는 국가 제사에서 배제되었고, 1472년(성종 3)에야 비로소 立廟되었는데 위패 명칭에 대한 변동성, 단군과 환인·환웅에 대한 치제 여부 등은 조선 전기 삼성사 운영의 안정성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고려시대 자료에서 단군사당의 존재는 『삼국유사』와 『제왕운기』에 실려 있는데, 아사달산에 들어가 산신이 된 단군을 모신 사당으로 기록되어 있다. 1006년(고려 목종 9) 기우용단에서 행해졌던 「기우용단의주」의 존재와 1116년(고려 예종 11) 4월 구월산에서의 기우 사실로도 그 역사성에 접근할 수 있다. 하지만 삼성사 제사의 직접적인 사례는 1386년(우왕 12) 은율현감으로 제사를 참관한 羅繼從에게서 확인된다. 그는 1386년 9월 19일 친구인 상서 嚴櫟의 삼성사 歲祭 설행에 참여했다. 이때 모셔져 있던 삼성의 신상이 단인·단웅·단군이었음에서 『제왕운기』에 수록된 『본기』 유형 전승의 수목숭배 신앙 범위가 上帝 단인까지 확대되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 그 제사가 세제였음과 제관의 관직이 상서였음에서 삼성사 제사가 2~3품의 중앙관리가 행향사로 차정되어 설행하는 유사섭사로 매년 봄가을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 건국 직후부터 논의된 국가 제사에서의 단군제사는 동방시수명지주로서 都始祖인 '朝鮮檀君'을 모시는 것이었다. 태종 때 실행된 기자와의 合祀 역시 그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고, 그 사당은 檀君箕子之廟였다. 하지만 기자와 비교하여 단군이 종향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독립된 사당 건립 및 삼국시조묘 건립 논의와 함께 檀君祠를 건립하고 부자 관계로 설정된 고구려 동명왕을 합사하는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이에 삼성사와 갈등 관계에 놓이게 되었고, 문화현 출신의 유교관료였던 柳觀·柳思訥 등을 통해 이에 대한 반론이 전개되었다. 그들은 평양과 비교하여 문화현이 단군과의 역사성에서 단연 앞서고 있음을 주장했지만, 단군의 도읍으로서 평양은 부동의 위치였다.

이후 문화현 출신의 요청을 받았을 李先齊는 『삼국유사』 「고조선」조 『고기』의 기록을 직접 인용하며 문화현에서 단군의 역사성을 강조하는 한편,

당시 황해도 전역에 만연했던 瘟疫의 원인을 삼성사의 단군 위패를 평양으로 이안한 것에서 찾아 염병 퇴치의 유일한 방법으로 단군을 다시 구월산으로 모셔와 삼성을 온전하게 제사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사실 단군전승에서 조선왕조의 공식입장이었던 『응제시』 유형과 구월산을 중심으로 한 『본기』 유형의 길항 관계를 보여준 사례이다. 이선제의 상서는 당장 수용되지 못했지만, 이후에도 진전되지 못한 황해도 역병 상황과 관련하여 문화현 사람들은 해결방안으로 단군 신위의 삼성사로의 환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그 결과 1472년(성종 3) 삼성사는 평양의 단군사당과 함께 국가제사에 편재되어 中祀를 적용한 「향조선단군의」를 준용하여 그 제사를 설행하였다. 祭品과 祭式은 역대시조묘의 성격을 가지면서도 산신신앙의 유습이 섞인 모습이었을 것이다.

▮ 참고문헌

자 료

『고려사』, 『삼국유사』, 『제왕운기』, 『죽헌유집』
『태조실록』, 『태종실록』, 『세종실록』, 『단종실록』, 『세조실록』, 『성종실록』, 『선조실록』, 『현종실록』, 『정조실록』, 『일성록』, 『서원등록』
『번암집』, 『봉촌집』, 『사가시집』, 『연경재전집』, 『염헌집』, 『운양집』, 『택당집』
『광여도』「문화현지도」

저 서

국립문화재연구소 미술공예연구실, 『사진으로 보는 북한 국보유적』, 문화재청, 2006.
김성환, 『高麗時代 檀君傳承과 認識』, 경인문화사, 2002.
_____, 『朝鮮時代 檀君墓 認識』, 경인문화사, 2009.
_____, 『마니산 제사의 변천과 단군전승』, 민속원, 2021.
이능화, 『朝鮮佛教通史』, 신문관, 1918.

논 문

강만길, 「李朝時代 檀君崇拜一實錄記事를 中心으로」, 『李弘稙博士回甲紀念 韓國史學論叢』, 신구문화사, 1969.
김남중, 「안악군 당장경 유적과 단군 전승」, 『동북아역사논총』 65, 동북아역사재단, 2019.
김성환, 「高麗時代 三聖祠의 檀君傳承」, 『백산학보』 46, 백산학회, 1996.
_____, 「고려시대 평양의 단군전승」, 『문화사학』 10, 한국문화사학회, 1998.
_____, 「세조의 평양 순행과 단군묘」, 『한국사학사학보』 19, 한국사학사학회, 2009.
_____, 「고려시대 氈城과 摩利山塹城의 제천단」, 『한국사학사학보』 30, 한국사학사학회, 2014.
_____, 「태백산산신 옥도검(玉刀鈐)과 삼척 오금잠제(烏金簪祭)」, 『한국전통문화연구』 21, 한국전통문화대 전통문화연구소, 2021.
박대재, 「이승휴의 국사편년과 역사의식」, 『민족문화연구』 94,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22.
박성지, 「구월산 삼성사 복원 과정을 통해 본 조선 초기 사대부의 신이인식—황해도 기이담론 연구의 일환으로—」, 『洌上古典硏究』 57, 열상고전연구회, 2017.
박진욱・안명찬, 「구월산의 단군사터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1994-3, 사회과학출판사, 1994.
손영종, 「조선민족은 단군을 원시조로 하는 단일민족」, 『단군과 고조선에 관한 연구론문집』, 사회과학출판사, 1994.
徐永大, 「葛蟠地小考」, 『종교학연구』 2, 한국종교학연구회, 1979.
허흥식, 「九月山 三聖堂事跡의 祭儀와 그 變化」, 『단군학연구』 1, 단군학회, 1999.

【Abstract】

From Tangun Heavenly King Shrine(檀君天王堂) to Samseong-sa Shrine(三聖祠), and the Debates on its Abolition due to the Construction of Tangun-sa Shrine(檀君廟) in Pyeongyang

Kim Sunghwan*

The Samseong-sa Shrine(三聖祠) was the result of the two relocation of Tangun Heavenly King Shrine(檀君天王堂), and Hwanin(桓因) and Hwanung(桓雄) were enshrined with Tangun at this time. The names of Danin(檀因) and Danwung(檀雄) can also be interpreted in this regard. In the background, there was a relationship with Paeyeop-sa Temple. Here, Tangun Heavenly King Shrine in Daejeung-san Mountain existed before the foundation of Paeyeop-sa Temple, it was moved to a small peak below, and it was relocated to Sojeung-san Mountain making it Samseong-sa Shrine in end Silla to early Goryeo period.

The State Ritual of Samseong-sa Shrine during the Goryeo period in 1386(12th of King Uwang) has been confirmed by Ra Gyeojong(羅繼從), who witnessed it in his capacity as chief of Euenwul(殷栗). He participated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annual rites of his friend, the official Ueom Yeok(嚴櫟) at Samseong-sa Shrine on September 19th, 1386. One can see that at this time, the enshrined images were those of the Three Gods, Danin, Danung, and Tangun, but during the Goryeo period, two to three public officials were appropriated to the post of priestly officer to perform the ritual as substitutes for the king every spring and fall.

Just after the creation of Joseon, the disputed Tangun rites, part of the State Ritual, involved the enshrinement of Joseon Tangun(朝鮮檀君) of the First Founde dynasty(都始祖) in the capacity of the king ordered by heaven to create the nation(東方始受命之主). However, it was concluded that the Goguryeo ruler, King Dongmyeong, who had been enshrined at the Tangun-sa shrine(檀君祠) in a father/son relationship together with Tangun. This affected the conflicted relationship with Samseong-sa Shrine and the with officials originating from Munhwa County, but the capital of Tangun was decisively set in Pyeongyang with no room for debate. Subsequently, Lee Seonje(李先齊) directly quoted the *Gogi* record from *Samguk-yusa* to emphasize the historicity of Tangun's place in

* Former Director, GyeongGi Province Museum.

Munhwa County, and he also suggested that a plague which was spreading throughout Hwanghae Province was caused by the transferring of the Samseong memorial tablet to Pyeongyang with the only way to stop the spread being its re-establishment on Mt. Guwol accompanied by the complete ritual offered to the Three Gods. While its official proposal could not be used at that precise time, in 1472, the Samseong-sa Shrine, together with the Tangun-sa Shrine in Pyeongyang, managed the State Ritual, applying the Ritual Ceremony for the Memorial Service of the Joseon Tangun(享朝鮮檀君儀), which adapted the Middle Sacrifice(中祀) to perform the ritual.

Keywords: Tangun Heavenly King Shrine, Samseong-sa Shrine(三聖祠),
Tangun-sa Shrine(檀君廟), Hwanin(Danin) Heavenly King,
Hwanung(Danung) Heavenly King, Joseon Tangun, *Samseongdang-sajeok*.

접수일: 2023.06.30. ‖ 심사일: 2023.07.12. ‖ 게재확정일: 2023.08.25.